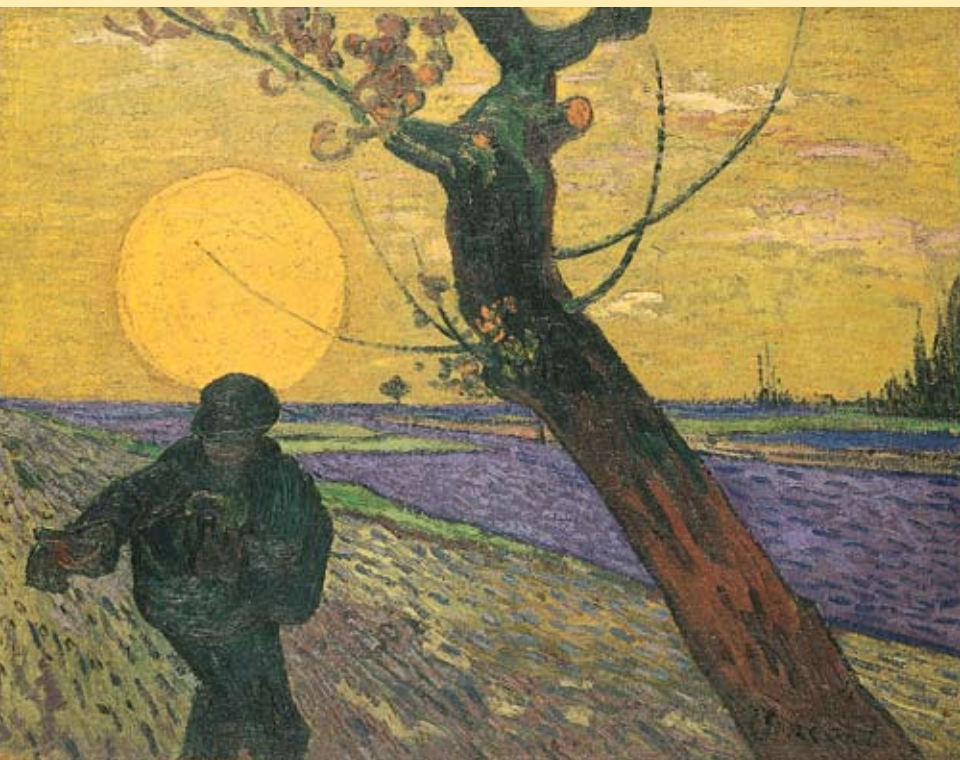


# 공동체 제자도

Discipleship



하인리히 아놀드 지음/ 설터 편집부 옮김

대천덕 신부 추천/ 헨리 나우웬 서문

이 전자책을 여러분의 벗들과 나누시렵니까?  
원하시는 대로 벗님들에게 보내십시오.  
이 책을 이메일하거나 부분, 전체 인쇄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문을 부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본 책을 방대한 발행을 위해 대량 복사하거  
나 뉴스나 잡지류에 재출판하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책을 재출판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다음 크레딧 라인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Used with permission”

이 전자책은 플라우 출판사의 출판물입니다.

Robertsbridge, East Sussex, TN32 5DR, UK  
[www.ploughbooks.co.uk](http://www.ploughbooks.co.uk)

Copyright ©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 공동체 제자도

## Discipleship

Living for Christ in the Daily Grind

하인리히 아놀드 지음/ 쉴터 편집부 옮김

대천덕 신부 추천/ 헨리 나우웬 서문

제자됨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하인리히 아놀드

# 차례

추천의 글  
들어가며  
책머리에

## 제자

내면의 삶 21/ 회개 33 / 회심 40  
믿음 45/ 교리주의 56/ 헌신 62  
육적본성 66 /순결 99/ 신뢰 104  
외경 111/ 복종 114/ 진실 123

## 교회

교회128 / 공동체 137/ 지도력 150  
은사들 159/ 용서 168/ 일치 177  
교회의 권징 184/세례 192/ 주의 만찬 200  
사랑과 결혼 204/ 가정생활 226/  
질병과 죽음 249/ 악과 어두움 260  
영적 싸움 270/ 세상의 고통 285/ 선교 296

## 하나님 나라

예수님 307/ 십자가 328  
구원 337/ 하나님 나라 347

## 추천의 글

하인리히 아놀드는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독일에서 시작된 브루더호프 공동체 설립자 중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브루더호프의 설립 목적은 성경 말씀에 따라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하게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리히가 만 6세 때, 그 부모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인리히로 보면 전 생애를 통한 경험인 셈입니다.

아놀드는 단순히 부모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11세에 제자로서 개인적인 헌신을 하였고 그 후로 계속해서 제자됨의 의미를 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놀드와 같은 사람은 모험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놀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만큼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기로 헌신한 다음부터, 희석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타협이 없는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리와 반쪽짜리 진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죄된 생활,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허락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좁고 험난한 길과 안락한 삶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란 때로는 박해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놀드가와 동료들은 독일과 안식처를 떠나 처음엔 영국, 파라과이, 그 다음엔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직접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한 길이었으나 그 길 역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세상 방식을 택한 소위 “표준형 기독교인들”이 브루더호프가 자기네 게임에 선뜻 응하지 않는다고 분개하며 조소하는 일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라”는 그리스도 그분의 변치 않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라는 기경되지 않는 땅에는 그러한 역경의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쳐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처리한다는 게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과 치르는 싸움보다도 자기 내면의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놀드는 제자의 내면 생활과 내적인 태도, 외적 양태 그리고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데, 이렇게 충만하고 풍

성하며 철저한 제자도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는 도전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목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소개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아놀드의 살아 있는 고백은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천덕

예수원 설립자



## 들어가며

[공동체 제자도]는 강렬한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하인리히 아놀드의 말은 마치 좌우에 날선 검처럼 다가왔고 진리와 거짓, 구원과 죄, 자기 부인과 자기 본위,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마귀라는 양자 간의 선택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의 안에는 모종의 거부감마저 느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온화하고 위안을 주며 위로가 되고 내적인 평화와 조화를 주는 복된 소식이라라는 생각이 내게 있었다.

그러나 아놀드는 복음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으며, 복음이 주는 위안은 세상이 주는 위안과 같지 않고, 또 복음의 온화함은 세상에서 “뭉든 좋다”는 식의 태도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되새겨 주었다. 복음은 한 가지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나 환영받고, 언제나 지지받으며, 언제나 찬사만을 받는 선택이 아닌 근본적인 선택을 말한다.

그렇다고 아놀드의 글이 거세거나 고집스럽거나 혹은 광신적이거나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충만하다. 강렬한 사랑이며 동시에 진실된 사랑이다. 예수님의 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랑이다. 아놀드의 말

이 관념이나 이데올로기, 이론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삶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은 이 글에 나타난 모든 권유와 권고와 경계의 중심에 계시다. 이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책이라 하겠다.

하인리히 아놀드는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을 그는 정확히 파악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딤후 4:1-2)

아놀드의 말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극히 지혜롭고 아주 안전하며 매우 도전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뿌리는 그 옛날 살아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가운데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뿌리를 내린 것이다.

아놀드는 종교적이고 감상적인 지침을 주는 사

람은 아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제자도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 안에서 체득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연단되고 정화된다. 용서와 치유의 모든 것을 배우는 곳은 바로 공동체이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배우는 곳이 공동체이다. 공동체야말로 참된 사랑의 학교이다. 아놀드는 그의 전생애를 공동체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공동체의 필요와 그 보람됨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속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다름 아닌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 책 때문에 난 무척 기쁘다. 비록 인기없는 말이지만 참다운 치유의 말을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나온 예언적인 책이다.

나는 이 책의 독자들이 두려움없이 이 책을 대하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안과 참된 위로, 참된 희망과 참된 용기를 주리라 확인한다.

헨리 나우엔(Henry J.M Nouwen)

## 책 머리에

어떤 책은 그 책의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가장 편할 때가 있다. 이 책은 기도서나 명상록이 아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담은 “감동적인” 일지도 아니다. 자기 개발이나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안내서도 아니다. 간략히 말하면 제자도에 관한 책이다. 겸손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관한 책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리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Johann Heinrich Arnold 1913-1982)는 극적인 방법으로 제자됨을 추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아놀드가 여섯 살이었을 때, 부모인 에버하르트와 에미는 베를린의 상류층 가정에서 중부 독일의 자나쯔(Sannerz)로 이사하였다. 그곳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과 4장 그리고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완전한 재산 공유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엄청난 격변기였다. 동시에 전후의 불안감 때문에 그 시대의 경직된 사회 인습과 종교 관습에 대항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명한 편집자요, 신학자요, 연설가였던 그의 아버지 또한 이러한 믿음의 도약을 했던 것이다. 이때가 하인리히의 성장기였고,

그 작은 공동체를 지나간 청년 무정부주의자, 방랑자, 교사, 장인, 그리고 자유 사상가들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 모두는 덧없이 비대한 기독교계의 위선을 버린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나프에서 찾은 기쁨과 헌신적인 삶에 이끌렸다.

하인리히 자신도 열한 살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소명을 느꼈다. 나중에 청년이 된 그는 당시 브루더호프(Bruderhof), 혹은 “형제들의 처소”로 알려진 교회 공동체의 평생회원으로 헌신하였다. 1938년, 그는 말씀의 종이요 목자로 추대되었고, 1962년 죽을 때까지 브루더호프 운동의 장로로 섬겼다.

아놀드가 돌본 무리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달랐다. 그는 전통적 의미의 목사가 아니었다. 그는 카리스카적 인물도 아니고, 기존의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아놀드야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 안팎의 건강을 열심히 보살피는 참다운 “지일조르거(seelsoger: 영혼 깊숙히 돌보는 목자라는 뜻의 독일어: 역자주) 또는 “영적 인도자” 였다. 무엇보다도 공동 식사와 업무 회의, 예배에 있어서 일하고 쉬는 일상 생활을 함께 나누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섬겼다.

이 책의 발췌문들은 아놀드를 개인적으로 잘 알

고 지낸 브루더호프의 형제자매들이 여러 해에 걸쳐 모르고 편집한 것이다. 출판된 글에서 개인 편지까지, 예배 모임의 사본에서 전체 브루더호프 운동에 관하여 쓴 회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료 때문에 발췌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가려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발췌 작업의 목적은 독자들이 아놀드의 증거를 그 충격 그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뿐이다.

아놀드의 문체는 솔직담백하고 자연스럽다. 그는 좀처럼 원고를 가지고 말하는 일이 없고, 글을 쓰면 문체의 핵심을 빨리 건드리며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의 증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단순성 때문이다. 아놀드의 믿음은 관념적인 신학적 서술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에 지쳐 있습니다. 싸구려 말들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형제애와 사랑을 반대한다고 말할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아놀드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영적 생활에 전력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한편 그가 쓴 모든 글 속에는 면면히 흐르는 한 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전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이다. 거듭 되풀이해서 아놀드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고서는—그리스도의 회개와  
 사랑에 관한 메시지에 부딪친 일이 없다면—그리  
 스도인으로서 살아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그에게 당면한 문제가 실  
 제적인 것이든 내면의 문제이든 혹은 일과중에 불  
 의의편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확고한 입장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  
 동체 생활의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  
 로 신중을 요하는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 문제, 사  
 회적 조류와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놀드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죄와 대항하는 데  
 각별한 용기를 불러 일으켰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무관심한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악과 싸우듯이 아놀드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도 싸웠다. 그 싸움은 결코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  
 니었다. 죄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  
 “격하다”는 비평을 받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  
 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광이 위태로울 때  
 냉정하고 초연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을 공격하거나 형제 자매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교회가 해를 입을 때, 격한 감정이나 흥분으  
 로 반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에 저는 반대합  
 니다. 학대나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키는 그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냉정하고 침착하라는 것에 전 평생토록 저항할 것입니다.”

또 당시에 아놀드가 아주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자르도록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강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아플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아놀드는 회개를 촉구하는 데 열정과 끈기를 가진 만큼 긍휼과 용서에도 열심이였다.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되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아놀드이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깨뜨린 사람들이 그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받았는데 그 신뢰는 결코 줄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그는 완전한 용서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깊숙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사람에게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하게도 깊은 회개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조롱과 배척을 받았지만 또 겸손 때문에 멸시를 받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모든 죄에 대해 눈감아 넘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지은 사람



위에 서서 호령하거나 가혹한 처벌과 율법주의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고난을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였다.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장로로서 아놀드는 독서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매일같이 쇠도하는 편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본다. 그의 답장을 보면 그의 겸손을 엿볼 수 있다. 어떤 문의를 받으면 상담과 위로와 권고를 하고 심지어 날카로운 책망도 하지만 결코 아놀드를 신뢰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지만, 항상 그 사람들을—자신의 죄와 개인 경건에 집착하던 데서 벗어나—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였다.

아놀드는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따금씩 문제를 더 생각해 봐야겠다거나 기도 중에 살펴보고 싶다고 말하거나 또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난해한 성구나 명확히 모순으로 보이는 말씀, 성경의 신비스런 표현을 물어올 때면 그는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혼자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단 접어둡시다. 언젠가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더 이상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폭 넓게 그

리고 구약과 신약에 정통했다 하더라도, 그의 교육은 곧 마음의 교육이며 지식은 영혼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놀드가 귀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형제 자매들에게 귀기울였다. 친구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기울였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 귀기울였다. “하나님께서 형제애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제 마음 깊이 귀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가난 말입니다. 교회가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일치된 형제애, 흠어진 자들을 모으는 형제애를 저는 고대합니다.”

아놀드의 글 속에서는 여러 측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아버지 에버하르트 아놀드(Eberhard Arnold)의 지배적인 영향, 독일 목사인 요한 크리스토프(Johann Christoph)와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Christoph Friedrich Blumhardt) 그리고 현세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지배적인 영향, 아놀드의 신비주의 성향에 나타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의 지배적인 영향 등이 있다. 또한 디트리

히 본 힐데브란트(Dietrich von Hildebrand)와 프리드리히 본 가게른(Friedrich von Gagern)도 있는데 그들의 책을 아놀드가 탐독했으며 자주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아놀드의 메시지에 괄목할 만한 비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아놀드의 증거에서 가장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 위로 끌어올려 일상 생활의 진부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흔히 외면하는 보다 위대한 실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아놀드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우리의 소소한 삶 너머로— 이 얼마나 큰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시각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작은 세계, 또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도록 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는 큰 심판날—미래에 올 세대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추수하는 날—에 대한 도전을 느낄 수 있도록 청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 에일리쉬(Hela Ehrlich)

크리스토퍼 짐머만(Christopher Zimmerman)

1994년 7월

제자  
The Disciple

## 내면의 삶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마치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전부라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예배와 설교에 싫증을 느끼고 다른 데 빠져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굳이 목사나 신부를 찾을 필요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마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며 그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오순절에 동일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

행 2:27-38

겠습니까?” 하였을 때 베드로는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바쳤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포기했지만 모든 물질을 공유했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변화가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주일 아침만을 위한 종교라면 기독교는 껍데기뿐인 일천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마음 사랑과 기쁨, 웃음, 진노, 노고, 순결, 일치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비록 상당 부분 왜곡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면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린아이들 속에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인색한 마음씨에 인색한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본인 주위로만 맴돌고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창조하신 영광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피조물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모든 풍요로움을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에서 교회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의 깊은 의미를 일러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고전 6:3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매우 신비로운 것을 만드셨는데, 다름 아닌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행 17:24  
고전 6:19

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우직한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아둔함, 즉 죽은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의 풍요로움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의 마음은 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을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생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엡 3:16-19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 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박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 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으신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해도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충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일깨우고 고무시킵니다.

사 55:3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구하는 데 달렸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우리와 하늘 사이에 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부부 사이가 나쁘다거나 하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물론 겨우 5분간 침묵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예수님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더 많이 속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더 신

속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편지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듣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 한 분께만 귀기울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모든 것을 벗어나서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밖에는 더 바라시는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물과 불결함과 샤덴프로이데(shadenfreude: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기는 마음) 혹은 사악함을 벗어 버린다는 말이며, 거짓말과 불신, 미움을 버리고, 또 세상 영과 하나님과 관계 없는 다른 모든 영들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다거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할 때, 열의가 없어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건강치 못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것들 - 난처하게 만들거나 고심하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깊은 곳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우리가 불운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든 사실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전존재, 전인격을 드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깨뜨리시고 이어서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우선 중요한 일은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힘쓰십시오. 적어도 매일 두세 장은 읽으십시오. 당신의 눈이 열려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위대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일인지 알게 되겠지요.

*한 편지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충동질할 때, 내적인 고요함을 찾으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미움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이해가 갑

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적인 고요함을 갖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재차 의심의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돕고자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서서히 극복될 것입니다.

다른 감정으로 이겨보려고 한다면 더욱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한 편지에서:* 어떻게 내적인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지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생활 속의 흥분을 벗어나 자아로부터 초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길게 기도한다고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그것은 대개 기독교적이기보다

마 6:6

이교적입니다.

좀더 기도 생활에 활력을 냅시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하지 맙시다.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도록 합시다. 기도가 살아 있을 때에는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며 생기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전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며 입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드리는 개인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의 공동기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 6:1-6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특정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더 가깝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려는 선한 영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보다 빨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구하고 찾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손을 펼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게 저절로 된다고 기대한 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 6:10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 -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 편지에서:*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라면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기 뜻이나 자기 영광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합당합니다.

요 14:13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출세하기를 바란다거나 100만 원이 주어졌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이루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말씀하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여러 날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하였

습니다.

단 10:12-13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 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사악한 천사장이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하늘나라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부터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맡길수록 더욱더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가장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연단하고자 하실 때에는 내적으로 메마름의 시기



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답니다. 그러니 내적인 메마름을 느끼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 회개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란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로 나온 것은 깎이고, 패인 것은 메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전존재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본위의 모든 생각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지만 먼저 회개하고 자기를 따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약속은 반가워 하지만 철저히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적대한 자들이 대개 불신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을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박은 군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했던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 3:7-8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 마음과 생각을 바꾸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분명히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관해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가르침에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 3: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 고 하는 세례 요한의 촉구를 사람들은 싫어하였습니다. 회개가 뜻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고행을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와 배금주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맞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밀랍처럼 녹게 되고 우리의 죄성이 밝히 드러나 놀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적인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시

고 그분 홀로 화해를 가져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심되십니다.

*한 편지에서:*우리 모두 회개의 진통과 아픔을 때마다 겪어야 합니다. 이것을 벌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자유케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편지에서:*회개를 어떤 의미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회개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된 사람임을 느낄 정도로 바뀔 것입니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면 크리스마스날에 스크루지 영감을 만난 사람들마다 지난 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목도합니다. 그런 회개를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현재와 과거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마귀와 타협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령, 불순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정욕에 대해 엄히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의 준엄하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늘에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로도 하시지만 각 교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들 교회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십니다. 한번 오신 다음에도 재차, 삼차, 사차, 오차까지도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의지가 강해서 자기 통제를 잘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는 것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삶의 모든 것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한다면 이야말로 가장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되고, 모든 감정, 생각, 느낌이 달라집니다. 회개의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시야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바램이나 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상 - 내적 성장이나 변화를 위한 계획들 - 은 종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만한 자리는 단념해야 합니다. 모든 숭고한 인간적인 노력은 희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에 알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흠없이 순수한 마음과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처음에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느낌이 커지겠지만 마침내 한없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결코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편지에서:* 누우침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경험 자체로 보면 매우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과거를 비추는 빛이 되어 고마움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 보게 할 것입니다. 회개란 죄책감 속에서 비굴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편지에서:* 참된 회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독과 싸우는 데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박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만지고 녹이실 수 없는 마음이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강박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토록 애닦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그 크신 사랑을 갈라 놓는 것은 모조리 벗어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겸손하고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깨끗하심과 진리의 빛 가운데서

만 - “더러운 쓰레기와 찌꺼기 같은” -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을 한번 경험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회개를 말씀하시는지 다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자기 죄를 자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것, 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복구하러 - 어떤 것도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 곳곳을 찾아 다니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한 편지에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니 감사하기도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자기 자신, 자신의 과거, 침체에 대해 골몰하는 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더 침체될 뿐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태양과 별과 달을 거울처럼 비추는 맑은 샘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일 바닥에 깔린 진흙을 휘저으면 온통 더럽고 혼탁해질 것입니다. 저으면 저을수록 더 탁해지겠지요. 묵묵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물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고 그 거울 속에서 당신과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 희심

요 3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  
랬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비밀이요, 신비이며 기적입  
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눅 9:62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한두 해만 따르고  
마는 결심일 수는 없습니다. 평생토록 따라야 하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기에 합당치  
아니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  
음을 지킬 때,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마 11:28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오셔서 정결케 하소서” 할 뿐 아니  
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겠습니



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벅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고 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 당신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길 원한다면 - 예수님이 당신을 다스리시도록 맡겨 드려야 하며 또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자신 안의 긍정적인 면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기꺼이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훌륭한 자아상, 자기의(義), 너그러움 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의 근본성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수의 무리를 원하시지 않고 헌신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그 밖의 안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줄 이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언제 제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나만 홀로 남았다” 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자도란 항상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계명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잡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인 체험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좀더 명확해져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그분의 성품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모든 성경을 다 인정한다 해도 확신을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직접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죄된 자아로 말미암아 파멸에 놓인 우리를 새롭게 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참된 회심에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발성이 뒤따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참된 회심이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자됨이란 철저한 헌신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 거기에는 시간, 정력, 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미온적인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전무한 것보다 더 나쁩니다.

마 12:33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위선자인지

마 7:21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요 15:1-2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심하고 세례받아 “구원을 얻으면”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러둡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요 15:1-2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죽게 되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요 15:4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에서 잘리어 불 속에 던져지고 태워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큰

요 15:6

도전입니다.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 -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빛이 이미 각 사람의 마음 속 깊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함이나 정의, 순결, 신실함을 간절히 바랄 때만 이따금씩 이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간절한 바람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없으며, 넘지 못하는 장애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자신이 노령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핑계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나태함 속에 산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 4:42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겠소.” 이런 믿음이 이제 우리 교회와 뭔가 새로운 것을 애타게 찾는 많은 이들 가운데 살아 있기만 하다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른 한낱 남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반 사람이 예수님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고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라도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조금도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성장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켰으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인들처럼 “이분이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열려져서 빛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살아 있는 믿음의 푸른 새 싹이 당신 마음 속에 자라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잘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에게 혹은 자아나 무슨 모양의 죄에게라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는 것을 자신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입증해 보이십시오.

딤후 1:15

믿음과 선한 양심은 서로 완전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는다면, 순수하고 살아 있는 양심 또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양심은 지탱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

하는 중이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소 아니면 진리이기 때문에 믿소?”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말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게 보인다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난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철저히 굴욕을 당하셨다는 불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요 3:16-17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불신앙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라는

롬 11:20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보다 깊은 믿음과 신앙으로 - 개인의 모든 문제와 공동체 생활의 모든 문제, 나아가서 전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믿음으로 - 새로이 각성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한 편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겠노라고 공언하였으나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는 견딜만한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흔히들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사랑한다면 완전히 이해받는 자로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그 크신 마음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작은 마음을 채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전 13:12

요일 4:19

세상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전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삶과 죽음 속에서, 기쁨과 심판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골 2:4-23

바울이 경고한 바와 같이 이른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릇되고 위험한 가르침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을 믿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간직합시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형제 사랑의 삶을 쌓도록 합시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찌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일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문화,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고통에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불의함을 알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과 더불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동정심은 있으나 인간의 죄 - 모든 사람이 가진 죄 - 는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본다고 하

지만 특정 계급이나 국가의 죄만 볼 뿐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보지는 못합니다. 창조주를 보지 않고 피조물을 주목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과 범죄 사실과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억압받는 자들에게 무정하며 인내심이 없고 그들과 더불어 고통을 겪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을 듣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거나 가졌다 해도 자기 영혼을 위한 믿음일 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동시에 이 필요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되 우리 시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문명을 넘어가시는 (passing over) 심판의 밤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 의심

*한 편지에서:* 당신은 결코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면의 체험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지적으로 입증하려고 애쓰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종류의 경험밖에는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살아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도마는 “내 손을 그 상처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20:25-29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친밀함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회의적일 때에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깨닫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 때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심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깊이를 더해 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

마 7:7

람 -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도우실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박당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의심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또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고 말합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화해는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 화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며, 회개하여 화해를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 6:6

*한 편지에서:*당신이 겪는 내면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론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빛이 당신의 삶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산상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 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

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눅 12:22-26

*한 편지에서.* 예수님은 근심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근심이란 결국 아버지께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십시오. 마음을 평안히 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별 게 아닌 것이 의심나게 한다고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영원성이라는 거대한 궤도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요 14:1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일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낙담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또 혼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또 개인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도리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제자됨이란 우리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 교리주의

*한 편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영적인 교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어둠과도 섞이지 않은 수정같이 맑은 믿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조금도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 십자가의 사랑의 행위만이 아니라 준엄하심까지 - 포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장차 사랑과 일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만일 이것을 변경하거나 약화시킨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 5:29-30

*한 편지에서:* 이것을 믿는다, 혹은 저것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은 교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 신학입니다. 잘못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교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실 신앙을 교리화한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적과 예수님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믿는 데 전혀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양심에 부담을 주기 위해 강변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학적인 논쟁을 거절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오셨으며,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리주의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대망하며 또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계속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 거기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이 되심(肉化)은 실재입니다. 다만 당신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불평등한 상태가 여전히 존재하며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회의 불의를 질타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육화되지 못한 교회,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체험이 분리된 교회에 다닙니다. 여기 신앙과 체험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신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야말로 교리적이며 속사람에게 위험을 미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좁아져야” 합니다. 이 “좁다”는 뜻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종교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만큼 넓은 마음을 지닌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펼치신 팔은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단의 문제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다면 우리 또한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거나 뭐든지 괜찮다는 식의 세상적 의미는 아닙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고귀한 것들 - 사랑과 열린 마음과 나눔 -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압제에 대항할 때, 이기심과 싸울 때, 자녀를 이해할 때, 개인 소유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할 때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분

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의 죄악에서 벗어나 살고 싶어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 통용되는 “죄악 세상”을 벗어나 따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직접적인 죄와 타락한 피조물의 집단적인 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 홀로 땅 한 구석에서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친구들과 모든 교제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느니 사업상의 관계라도 갖는 편이 더 낫습니다.

“파괴적인 세상 방식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개선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구할 수는 없을까?” 라는 당신의 물음은 어떤 의미에서 한 질문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제안대로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결국에는 무수한 원칙들만 남고 고독과 메마른 사랑 속에 끝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원칙 자체가 사랑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상 과멸을 가져오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돈이나 우체국이나 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세

금을 내지 않아 감옥을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원칙이라면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고 그 후론 자기가 세운 원칙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편지에서:* 외적인 종교 형태들을 사용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도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마다 형체를 주셨습니다. 모든 형태를 없애려는 생각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의 만찬, 기념 성찬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형식적인 기독교는 반감을 삽니다. 그런데 당신은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 멀리 달아나 있군요. 결혼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공동 식사와 공동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식을 그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너무 시간이 모자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자주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여러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물질을 통용한다거나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믿

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옳고 참된 원칙이라도 우리가 그 원칙에 완전히 지배당하며 산 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른’ 원칙이라도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입니다. “의로운” 원칙들은 이미 겿세마네에서 끝났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만이 차지하시는 - 그 선하심과 그 은혜의 자리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의 원칙들은 덮혀 있어야 합니다.

## 헌신

마 13:45-46

많은 사람들이 분열된 삶을 살게 하는 이원론에 익숙해 있는 데, 실로 긴장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사람들 안에서 특히 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편단심이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다른 모든 보석들은 처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유념한다면 각자 자신의 분열된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마음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자신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이웃과 더불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분열된 마음은 우리를 갈갈이 찢어 놓고 말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후터파형제들의 연대기> (The Chronicle of the Hutterian Brethren) 속에는 재세례파로 개종한 방앗간 주인의 아

들인 16살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이 체포되어 참수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느 부유한 귀족이 소년에게 개종을 철회한다면 자기 아들로 삼겠노라고 제안하였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고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자신의 문제나 좌절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과 후대의 순교자들이 감당했다면 자기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자신할 만큼 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합니까? 현재 우리에게는 집과 가정이 있지만 우리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브루더호프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아무

요 15:20

런 보장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당할 것을 단언하십니다.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사랑의 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행복한 나날만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대대로 자신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받은 것에 대해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습니다. 또 분명히 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브루더호프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보호 상태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핍박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만 남게 된다 해도 계속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산다면 “나의 주, 나의 반석” 이라는 확신을 가지

시 28:1



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가거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실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신앙 생활이 중간쯤 왔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새로워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흔히들 미지근한 태도가 생기게 되지요.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깨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중간기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어느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 육적 본성

유혹\*

우리가 어떤 면으로 너무 세속적이지 않은가 의 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포츠, 사업 문제, 돈에 대한 관심으로 너무 많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유혹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라든가 사랑의 즐거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조차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경험을 대체시킬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히 2:18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 4:15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번째 유혹을 받으실 때 악마를 알아 보고, “악마야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4:1-10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다니 신성모독이 아닌 가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제게는 의구심 없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 4:15

어디까지가 유혹이고 어디부터 죄가 됩니까? 악한 생각으로 괴로워하거나 유혹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결한 생각이 나서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 환상을 즐기기 위해 음란 잡지를 산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마다 대답할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유혹에 대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유혹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상태로 계시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차림새나 머리 모양을 뽐낸다거나, 옷맵시가 다른 사람이 불순한 눈길로 쳐다볼 만큼 유혹거리가 된다면, 당신은 교회의 징계감이 될 정도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순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알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후 10:5

바울은 악한 생각에 대항하여 싸우는 믿는 자의 싸움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승리의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이 논쟁적이고 그 속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다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삶의 일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이 대단한 것은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물론 승리란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이 인류 대대로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의 공격을 받아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 영적 전쟁은 자기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영적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싸움입니다.

대적 악마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

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매우 실제적이십니다. 마음에 참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 4:15

히브리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받는 유혹과 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남녀 노소 모든 이들이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요, 왕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 5:7

히브리서 5:7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큰 소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 증오심 등 다른 악한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그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그림이나 상상, 생각들로 괴로워하면서 순수한 마

음을 지니려고 애쓴다면 이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의지로 순수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물리치려고 자신을 안에서 조인다면 그 악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치 않는 악한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모든 악을 이기셨습니다. 당신도 역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다면 패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은 가장 극악스러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느낀 그 고통이 바로 이런 끔찍한 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상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자기 영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화살 - 악한 느낌이나 생각, 상상 - 때문에 생긴 상처를 치유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았다 해도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무조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란 결국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정결함과 마음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위협을 가할 때나 우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이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짐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양심을 청결하게 하되 어릴 적부터 그래야 합니다. 일단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데 익숙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에 대한 사랑 등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히 5:7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싸우듯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같이 싸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처럼 치열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셨기 때문에 - 앞으로 우리도 싸워야 하겠지만 - 우리의 고투를 이해하시고도 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편,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것처럼 - 죽기까지 싸우라고 모든 이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마 16:24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르켜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를 뜻합니다. 바울은 초대 교회를 핍박하였고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에 주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 자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라고 깨달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랑을 이야기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죄란 우리의 육적 본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육적 본성과 싸워야 하는 데도 어떤 사람은 깊숙이 마귀적인 죄에 빠집니다. 마귀적인 죄는 자기가 찬양받기 좋아하고 하나님께만 돌릴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 위에 군림하며 추앙받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며, 결국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악마 같은 죄에 자신을 내어 줄 경우에는 우리의 육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음란과 탐욕, 위선, 시기, 증오, 잔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 같은 것들말입니다.

*한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오랫동안 충

분히 나누면서 자신의 죄 또한 완전히 고백하려는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에게 깊은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생각할 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보다도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눅 5:31-32

당신의 과거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건강한 자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 왔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욕망과 유혹이 생길 때마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는 복음 전체를 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아울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올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고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의 준엄함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마 8:12

요한계시록 22:12-15는 복음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모든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고 어린양의 피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한 사람마다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준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계 22:15

것이다.”

막 12:30

만일 우리 마음을 악에게 내준다면,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신을 만들 때마다 마귀는 늘 이렇게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재물 -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일가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이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막 12:31

제일가는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예수님의 두번째 계명은 네 몸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웃을 신뢰하지 말라고 늘 속삭이며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면, 분열과 불신과 죄가 우리 관계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곳 미국, 특히 인종주의 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전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서, 서로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나.

어느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 앞

에서는 당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은밀한 생각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맙니다. 어떤 악한 생각이 죄가 되는지 하는 것은 당신이 그 생각을 즐기는지 아니면 맞서 싸우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루터는 악한 생각이 머리 위를 나는 새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새가 날아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머리에 등지를 틀게 놔둔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한 편지에서:* 이제 남은 생애를 몰인정하고 잔인한 데서 돌아서도록, 특별히 어린아이와 병약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한 데서 돌이키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해서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을 파괴시키고 싶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몰인정한 태도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 버린 것에 충격을 받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저는 당신이 왜 교회에 와서 거짓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행 5:4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지만 부정직하게 돈을 빼돌리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어찌 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그리고 덧붙여서 “일찌감치 교회를 떠났더라면 자기네 돈을 그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하였습니다.

히 9:27

하나님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여 양심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와 관련을 맺으려 합니까?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나중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26-27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고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히 10:26-27

히 12:15

히브리서 12:15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의 때에 버린 바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대한다면 우리는 당신과 아무런 관련을 맺을 수 없으며, 당신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롬 8:1-2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이긴다는 것, 기쁘기 짝이 없는 말 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면 언제나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고 우리의 옛 성품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육적 본성만 없었다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을 지닌 채 세상에 태어났고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산다 해도 우리 스스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무조건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롬 8:5

“육적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고 방식도 그에 따라 형성됩니다.” 우리는 매번 이것을 경험합니다. 사고방식이 육적 본성에 뿌리를 둔 사람들에게는 미움, 질투, 시기가 나타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소용없는 일처럼 말입니다.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

롬 8:7-8

릴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렬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자체가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활은 분명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미움, 시기, 속임수 등등 여러 가지 죄된 모습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롬 8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천한 본성 혹은 육적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음식, 안락함, 성(性)에 대한 욕구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 굴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음식과 주택이 필요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한다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에 집착하거나 자녀들을 버릇없이 키우고 우리 자신 또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음식은 단순한 예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의 지배를 당한다면, 아무리 영적인 것일지라도 - 경건된 목상이나 독서라도,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처럼 심오한 자기 고행 철학에 심취한다 해도 여전히 육적

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를 중심에 올려 놓음으로써 교만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롬 8:9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로마서 8:9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하는 자는 아무 값없이 생수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마 7:7-8

롬 8:1-2

해를 거듭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헛되이 힘쓰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동시에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지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으며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거나 “변화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



다” 고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변명은 근거 없는 변명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롬 8:12-13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빛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육적 본성에게 더 이상 빛진 것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든 형태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질투나 미움, 음란, 거짓말 등 그 어떤 죄도 도저히 우리 안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 어떤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

를 끊지 못한다는 말에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변명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간구합니다.

자기 연민과 교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십자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나, 나, 나하고만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악마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 능력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는가?” 거기에 믿는 자들이 크게 승리의 기쁨을 외치며 대답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요 13:34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순종해야 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다른 많은 죄들이 있습

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명령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사랑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5:22

하나님은 모든 사랑 없음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경멸하는 죄—하나님을 바보로 믿게 하는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르기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한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비웃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한 편지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 제가 너무 매정하게 대하거나 간혹 화를 내는 데, 죄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친절과 온유함에 대해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묵은 국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긍휼함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섞어야 합니다.

요 17:15-16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속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춤추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또는 “육적인 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세사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술이 세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음악이나 어떤 자동차가 세사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사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는 버려야 할 세사적인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욕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세속화를 막기 위해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데에서도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 성령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며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소서.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도 계속 증오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누군가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바르게 지적하듯이 율법은 우리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

할 수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당신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마 5:6-8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나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아마도 마음이 깨끗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주리고 목마르다거나 공허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만이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음란과 시기와 허영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백

*한 편지에서:* 과거의 죄에 억눌려 괴로워하며 고백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깊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백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양심을 달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나 정신의학만으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를 고백했지만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당신의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고백은 잠시 다른 사람에게 짐을 풀어 놓은 것 뿐이고 나중에 그 짐은 다시 돌아옵니다. 평화란 살아 있는 믿음과 죄의 고백이 함께 결속된 사람만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고백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는 모든 죄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것까지 잠재의식을 모조리 파헤쳐 가며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깨끗이 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백으로 말미

암아 자기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 16:23

*한 편지에서:* 사람이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악한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냐고 당신은 물으셨지요. 사람이라면 “악마야, 물러가라!” 고 해야 할 만큼 각가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악한 생각들을 대적한다면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빠르게 그런 생각들을 잊으면 됩니다. 또 한동안 어떤 악한 생각과 씨름하다가 물리쳤다면 그런 경우에도 굳이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생각에 굴복해서 당신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했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당신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합니다.

*한 편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개인 고백은 신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죄를 털어 놓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낙인이 찍힌다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고백의 비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 혼자 듣고 비밀로 한다면 도리어 제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간음 같은 중대한 죄 - 혹은 (우리에게 일어난 적은 없지만) 살인

과 같은 죄를 어느 교인이 저질렀는데 저 혼자 침묵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교만** 성경은 우리가 육체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육체를 성욕, 혹은 과식, 과음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육체” 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적인 부정함과 호사스러운 생활 방식은 “육체적” 입니다. 그러나 자아라는 것도 육체적이며, 영적 교만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육체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육체 - 특히 우리의 교만이 죽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육체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마음의 자리를 조금도 남겨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경건 - 사람들로 부터 “영적” 이라든가 “선하다” 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하게 경계하십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 부터 찬사를 받은 것



마 6:3

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과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모두 호감을 사고, 존경받고, 선한 일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시며 우리 경건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십니다.

눅 6:24-25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또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떤 체험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의행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경건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진리라고 깨달은 것을 붙잡는 순간, 그와 같은 종교적인 깨우침은 손바닥에 차가운 돌처럼 될 것입니다. 가장 심오하고 가장 풍부한 영적 체험이라도 그 자체가 대상이 된다면

그 체험은 죽은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은 자신의 일에 자만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인 거짓 겸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힘도 있고 똑똑하고 혼자서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능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능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썩지 않는 “하늘에 쌓아 둔 보물”입니다.

마 5-7

마 11:18-19

세례 요한이 금식하자, 사람들은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자 사람들은 예수님 역시 경멸했습니다. 비판거리를 찾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형제 자매들을 본다면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에게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라지 맙시다.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매님, 자매님의 의견 주장과 필요가 합당하게 되려면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매님이 겸손하게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열도

록 합시다. 서로 서로 나누며 서로 듣는 사람이 됩시다. 결국 모든 걸림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십니다.

*한 편지에서:* 크든 작든, 약하든 강하든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의 태도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능력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씩 부인하는 겁장이라는 것에 의심에 여지가 없으며 그 이야기는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베드로는 평생토록 자신이 배반한 것을 회개하였으나 그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위대해지길 바라지요. 능력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부당하게 대하는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결코 죄를 선택한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비판적인 생각과 모든 질투와 모든 증오를 마음에서 씻어 내십시오. 사람들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저는 큰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생각합니다.

*한 편지에서:* 교만과 시기에서 결코 자유케 될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모든 죄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없애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려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팔복을 읽어 보십시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 뜻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비워지고 무력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편지에서:*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 깊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지식이 많을 때 갖게 되는 교만이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인지, 또 죄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시길 빕니다.

*한 편지에서:*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교만 -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

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허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이 죄에 속박된 이유는 그 뿌리가 대단히 큰 자기의와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작은 잘못들을 발견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져야 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만은 자기에게로만 사랑을 빨아들이고 예수님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독성이 강한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이 뿌리는 죽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조 록 7:47

빌 1:15

바울 시대에는 선한 뜻이 아니라 질투심과 다툼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명예를 바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모든 인간적인 명예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돌려야 하는 영예를 갈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영예를 돌리지 맙시다. 또 자기 영예를 구하

는 일도 일체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움직이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자기 영광과 명예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 자 아

본인 위주로만 생각이 머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객체지향적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작은 자아를 완전히 잊자고 하는 주의입니다.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자리잡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주 보잘 것 없는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존재보다도 훨씬 더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용받는다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 뜻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름길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더 많이 변화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듯 줄곧 자기에게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

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이 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속죄한다든지 자신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며 우리의 체험입니다. 자기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또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월등히 크십니다.

*한 편지에서:*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교만과 불결함과 이기심 등 각가지 악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서 완전한 성품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자신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지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에 자신을 여십시오.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전 11:31

당신은 자신도 자유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빠져 있군요. 자기 판단이 자유를 주기도 한다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기 판단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방식은 정신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완전히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저런 죄에 강한 집착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성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5:7-9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어 보십시오.

히 5:7-9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드님 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보답으로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물론 자신의 이기심과 사랑의 결핍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체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슬픔이 있고 또 마귀에게로 인도하는 슬픔이 있다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말했습니다. 이 말에 깊이 유념한다면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과 반대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받고자 한다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시샘하는 이유가 얼마든지 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뿌리는 자기애에 있습니다. 당신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 순결

마 5:8

*한 편지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 남녀 사이의 관계를 묻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미혹케 하는 자와의 싸움은 어디서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정욕적인 눈으로 본다면 차라리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만이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 5:27-29

마음의 순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교회는 이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소유와 살인의 영을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정욕을 반대합니다. 순결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은 순결의 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은 축복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순결한 삶에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악으로 몰고 가는 음란의 영의 군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음란을 즐길 때, 마귀의 지배 하에 자신을 넘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도록 의도된 우리의 성이 도리어 인생을 파괴시키는 무시무시한 경험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매춘만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구할 때에도 해당됩니다. 자위 행위에 탐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때문에 입을 해악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과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악한 영들 - 잔인성을 지닌 마귀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들어와 살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잡지와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음란성은 공공연히 저지르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와 젊은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성애가 어떻게 합법화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순결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사람의 양심의 어딘가가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정육은 살인을 부릅니다. 정육이 합법화된 이래로 수없이 많은 낙태가 자행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태 속의 아기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

리는 젊은 여자와 부인들의 정신적 고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은 수많은 정신적 파멸은 치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는 단결하여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예수님의 길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으로 성적 충동을 만족시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것을 그와 반대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성적으로 남용할 때에는 왕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하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형제님, 개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형제님의 전생활이 매달리다시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란함에 대한 모든 은밀한 유혹들을 반드시 버려야 하겠습니다. 형제님의 내적인 놀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놀림에서 형제님을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매님, 자매님이 육정적인 분위기 속에 싸여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 권면하려고 합니다. 성애주의(eroticism)와 성의 세력은 누구나 직면하는 문제라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자매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순결 - 흠없는 청순성과 동정(童貞)의 빛 - 이라는 선물을 고귀하게 여기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남자들과 무심코 맺는 관계가 조금이라도 자매님의 삶이나, 또 옷차림새와 걸음걸이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매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원하는 권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특히 성적인 면에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대학 생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때때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부패해지는 이때, 결연한 마음으로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아니다” 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은 순결한 마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란한 그림이나 상상 등 그 외

다른 것들이 당신을 유혹한다 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에 그런 것을 즐긴 사람임을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냉담함과 무관심은 도리어 유혹에 맞서지 못하도록 나약하게 만든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기초로 한 삶인지 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순결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신뢰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찌서 그렇게 힘들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단 한 순간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여기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죄를 드린다는지 우리의 부담스런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가져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자아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 조건을 달고 있다면 - 우리는 결코 복음서에서 약속한 완전한 내적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장 내밀한 것을 드러야 합니다.

요 14:1



요 6:53

흔히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마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요 6:67-69

“너희도 가려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 전존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실재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체계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 앎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앎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 - 우리의 전생애를 영원토록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머리로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존재 안에서 신뢰와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떠나서 우리는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처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영, 주님의 죽음과 생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비방이나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방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한 신뢰와 사랑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게 되리라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곤혹스러운 일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나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의 신뢰의 부족이 죄라는 것만은 잘 압니다. 인생이란 곤혹스러운 일도 있고 근심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에서 돌이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

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 내적인 진통을 겪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를 신뢰하라.”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 편지에서:* 신앙에 대한 난해한 문제들에 지나치게 골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찌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와 같은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 질문에 유일한 답은 무조건적인 완전한 신뢰입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 안의 내적인 욕구가 강할 때에도 우리는 자신을 잊고 날마다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늘어놓는 기도를 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꼭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 유혹을 느낀다면, 우리는 내적인 침묵을 찾아야 합니다. “내 뜻

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헌신적인 신뢰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내적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고한 신뢰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끔찍스러운 일 때문에 아이 엄마들이 두려워하곤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엄마들의 입장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첫째아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폭격 중에 태어났는데 매일 밤 폭격기들이 우리 위를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폭탄이 근처에 떨어졌는데 - 하나는 우리 땅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옆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폭탄에 대한 두려움보다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죽음을 뜻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적 고통은 더더욱 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폭격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우리 역시 큰 고통과 죽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 어린아이의 부모를

계 21:4

포함하여 -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느 날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두려움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고난당한 모든 자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 3:16-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계곡에 내리쬐이는 햇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갑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층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내지 마십시오. 계곡을 굽어보고 산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당신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시다.

언제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 21:1

당신도 매우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겠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 외경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에 대해서도 경외감을 가지고 피해를 입히거나 손상시키는 따위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며 갈수록 사랑을 차갑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경외감과 그릇된 두려움을 혼동한다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외감은 사랑과 존경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눅 5:8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대면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를 없애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파괴시키는 두려움은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일 4:18

*한 편지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이 말

마 25:1-13

마 10:28

씀은 세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같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은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르고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출 20:7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내적인 느낌 때문만이 아니라 십계명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못한다.” 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사랑의 행위를 망각하는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또 아무도 알려 하지 않



고 증거하지도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됩니다. 그래도 적대감은 최소한 관심이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눅 2:25-39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신하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 두 명뿐이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 복종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 형제 사랑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거역하는 마음을 단호히 그리고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며,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쪽은 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고 예수님의 길과 성령님의 능력에 복종한다면 온 세상을 비추는 불꽃은 불 타오를 것입니다.

마 19:21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네 부친을 장사하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네 고기잡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마 8:22

마 4:19

눅 14:20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명령들을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마다 가진 것이 적다 해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리만큼 “부유” 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를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

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열어 놓고 자기 뜻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요청 없이는 일하실 수도 없으며 일하려 하지도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하기를 기뻐하시며, 어찌서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개인이나 나라를 징벌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목을 조르면서 자기의 선한 뜻을 강요한다면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사랑이 아님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물음 앞

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려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주관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기꺼이 열겠는가?

우리는 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게을리했다면 또 다시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와 게으름에 대해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길 - 죽기까지 충성하길 -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 - 자기 뜻과 개인의 행복을 바라는 소망, 개인 소유물, 자신의 연약함까지 - 을 포기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자신을 온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한 편지에서:* 참으로 무조건적인 행복이란 무엇 일까요? 더 힘센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더 강한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완전한 복종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 그분만이 홀로 선하십니다 - 경험한 사람만이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무조건 하나

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보여지는 사람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도 복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 편지에서:*우리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충만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있다면, 저는 우리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또 소망합니다.

*한 편지에서:*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이 곤궁하며 얼마나 무력한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불쌍하고 곤궁한지 하나님이 보여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

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도움은 없습니다.

눅 22:42

예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되며 사람들과 서로 하나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며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 힘써 싸우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에워싸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설사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순 중  
요 15:16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지명하고 너희 자리에 앉혔나니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여기에서 “너희 자리에 앉혔나니” (독일어 성경 참조)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자주 끔찍한 해악을 저지르게 되는지요. 그런 불만은

중요를 낳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각자 마련해 주신 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 21:1-7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  
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세  
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당신들은 더 큰 일에 소명을 받았소. 당나귀 끌  
고 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  
고 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불  
순종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나귀를 끌고 오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들 그  
렇게 순종하는 일이라면 크든 작든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순  
종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 겸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인간적인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야망에 대한 유혹  
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유혹에 대항하는 태도를  
반드시 지녀야 하겠습니다.

*한 편지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유익을 줍니다. 죄

고후 12:7-9

를 변명하는 데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연약함은 하나님 나라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7-9를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서 바울은 주님께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두고 볼 때 이 말씀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제자됨에 관한 복음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10:45

*한 편지에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겸손의 필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기에 매우 부족한 자라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마 5:3-12

팔복은 세상에 빛나는 위대한 성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 이따금씩 비판적인 마음이 들고 겸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겸손을 구하십시오. 겸손은 겸손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덕성입니다. 겸



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비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고 연약한 성격이라는 데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순결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또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건강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자비 가운데 예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자기 동생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시기한 가인의 유혹에서 돌아섭시다. 단지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기뻐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시도록 주님께 맡깁시다.

창 4:5

*한 편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우리 삶의 연약함과 보잘 것 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의지할 때에만 도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야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그 승리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빌 2:3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경쟁심이나 개인의 허영심을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허영심만이 아니라 -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어하고 존경받고자 하는 종교적 허영심도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 허영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여러분은 겸손히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한다” 고 말합니다. 어느 형제 자매보다 더 우월해지고자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 2:8

# 진실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또 늘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만 한다는 것 - 더도 덜도 하지 않고 꼭 그 만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진리에 대해 지적인 동의와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산다 해도, 실제로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경건의 말은 결코 하지 맙시다. 제 자됨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말하면서 그것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과 내면 세계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말과 믿음을 과시하는 말은 삼가합시다. 의미 없이 하는 말은 우리를 파멸시키며, 또 우리의 위선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재난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마 6:5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나타내려 하는 일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진실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의미 없이 정확한 말을 사용하기보다 말 표현이 정확지 않아도 진실된 생각을 말하도록 합시다.

*한 편지에서:*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대제 사장은 일 년에 단 한번 - 대속죄일 - 오직 성전의 지성소에서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답니다. 그렇게 경건한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의를 표하는 태도는 내면의 단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의 진실된 감정에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나긋나긋하기보다 오히려 무뎉뎉한 것이 낫고 지나치게 친절한 것보다 통명스러운 것이 낫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서 “멋진데” 하고 말하기보다 불친절할지라도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불친절하게 말하면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위선은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 그 해악이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브루더호프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청년 운동은(자발적으로 조직된 청년 집단들의 폭 넓은 활동을 일컬어 독일청년운동 혹은 유겐트 베베군크 Jugendbewegung라고 하는데 주로 1931-33년에 활동적이었으며 기존의 사회 관습을 배재하고 단순성과 자유, 진실, 사랑을 기치로 내세웠다.) 진정한 것을 찾는 데 그 특징이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일면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첫 질문은 무엇이 옳고 선하고 사실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한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에서 나오지 않은 경건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부정확하고 서투르게 말할지라도 천진스럽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뜻도 모른 채 뇌까리는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사람들 마음 속 깊은 데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었으며 삶의 새로운 감각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망은 하이킹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포크 댄스를 추고, 공동 생활을 경험하는 교제로 이끌어 갔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깊은 내적 경험을 하였고, 둥글게 춤을 추며 박자에 맞춰 울동할 때 마음 깊숙한 데에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것만을 그려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행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가식을 거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내적 경험이야말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야말로 죄인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

님의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받아들였으나 그런 다음에는-경건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사탄을 섬기는 자입니다.

마 25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다섯은 잠에 골아 떨어집

마 24:48-49

니다. 또 마태복음 24:48-49에서 좋은 주인에게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훼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자 한다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진실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외적으로 정결케 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건에 대해 예수님은 얼마나 예리하게 지적하십니까! 내면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 23:26-28

교회  
The Church

## 교회

우리는 인류가 고통 중에 있으며 분열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살아 있는 교회를 경험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합니다.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실 때, 죄로 말미암은 분열과 외로움은 극복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 내면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면, 교회는 창조 전부



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권리, 권력, 재산 그리고 자아를 포기한 곳은 어디나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인지 묻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집단이 영적으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교회는 더 가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세력을 과시하겠다는 생각은 철저히 포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말할 때 반드시 브루더호프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연합된 삶의 열매만이 교회가 있는 곳을 나타낼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저술을 보면 가령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글에서 우리는 교회가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개념을 되풀이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에버하르트 아놀드 엮음, <The Early Christians> Rifton,NY: Plough,1970,p.278) 그야말로 심오하고 주목할 만한 개념입니다. 소수의 회중이나 수백만 사람들의 모임을 자칭 교회라고 부르는 개념과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브루더호프나 후터파 교회를 말할 때, 이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식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훨씬 더 광대합니다. 교회는 만물이 태동할 때, 천지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활동하기를 열망합니다.

16세기 재세례파 피터 리더만(Peter Riedemann)

은 교회에서 모이는 신자들의 모임을 등에 비유했습니다. 등 안에 불이 없다면 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유무상통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과 전적인 헌신과 참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살아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교회는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며 성령으로 연합하고 살아 있게 합니다.

*한 편지에서*:전 세계적으로 결핍과 절망이 만연된 지금, 형제 사랑의 삶과, 일치와 사랑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전세계적인 필요

에 비교하면 그러한 삶은 극히 미미해서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긴 설교나 종교적인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라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자됨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증오와 욕구와 죄와 불일치보다도 더 강하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되 무조건적으로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요청하십니다. 먼저 자기 구원만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중보기도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참다운 공동체라면 성령의 은사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나, 침묵할 때, 함께 노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초대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는 잘 조직된 기관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에 따라 움직였으며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고 아무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은

행 4:32

냉정하게 법 집행을 한 것도 아니며 공산주의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형제 사랑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며, 단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운 혹은 영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전 12:12-27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면, 서로에게도 신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했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과 서로 연합할 것이고 한 몸같이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눈을 찌른다면, 팔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상처를 입는다 해도 재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그렇게

합니다.

*한 편지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하나 되었으며, 사도들과 순교자들과도 하나되었고,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대속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방향을 바꾼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상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선명하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냉정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궁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브루더호프는 유럽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

니다. 동일한 특징이 형제 교회나 웨이커교도 혹은 다른 종교 운동에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대해 특히 자기네 배경에 대해 일종의 애정과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전 세기를 걸쳐 내려 온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브루더호프는 무엇입니까? 브루더호프 안에 유익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생명의 흐름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운동이 지나간 것처럼 브루더호프 운동도 사라질 것입니다. 브루더호프 운동은 생명의 흐름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 생명의 흐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청년 운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독일 문화를 가진 기독교 공동체를 구상했다면, 미처 시작하기도 전에 고사하는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곳마다 쓰임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무엇에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를 제한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

두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결코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브루더호프가 제게는 더 중요해 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어떤 시급성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에 완전히 내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흘러가도록 방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제는 “위에 있는 교회”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로부터 나온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실재 앞에 우리는 희미한 태도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한 편지에서*:우리가 교회로서 헌신적이고 진리와 소금으로 충만해서, 작은 양의 소금이 전체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잼을 만들고, 또 그 이웃이 다

른 이웃을 위해 잼을 만든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 25:1-13

요 17:21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  
다. 촌각을 다투는 때입니다. 등불이 잘 준비되었  
는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  
지막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일치되  
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이러한 물음을 남깁니다. 우리는 진정 이것  
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 공동체

우리는 개인 소유와 자신을 위해 물건을 쌓아 두려는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혹은 자기 공동체를 위해 부를 향유하는 것은 내적인 죽음을 낳습니다. 부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또 이웃과 단절시킴으로써 죽음을 가져 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데, 그러면 재산을 쌓아 두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문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의 청지기 정신 아래,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마 19:21

예수님의 길은 완전한 무소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일찍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땅 위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 6:19-20

*한 편지에서:* “사람들과 가족들을 떠나서 어떻게 서로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당신이 물으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상과 존재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과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한 실제 체험 없이는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며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생활의 영적 기초에 대해 물으신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4:33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13에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오순절에 일어났고 제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고전12:25-26을 참조해 보십시오. 유무상통하지 않는 교회 생활에서는 이 말씀

눅 14:33

요 16:13

행 2:44,  
4:32-34

고전 12:25-26

의 진가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고후 8:13-15

고후 8:13-15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에 의해 움직여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흘러 넘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당신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는 오늘날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실례로 오늘날 교회는 십일조 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는지 감사하며 교회 주보에 간증을 합니다.

행 4:33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앙의 근본 기초가 돈과 물질을 나누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과이지 기초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고 그 사랑에 굴복함으로써 얻어진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 소유물, 재능, 삶 전체를 돌려 드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묻는 당신의 질문에 대해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지 물질을 나눈다고 반

드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쳐서 그에 따른 결과로 물질이 나뉘진다면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브루더호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매료시킨 것은 다름 아닌 형제애와 사랑의 삶의 구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려면 값싸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형제애와 사랑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찾았고, 돌이 아니라 떡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새로운 삶 말입니다.

당신은 한 명의 회심자가 “브루더호프의 복음” 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하셨지요. 복음이라고 할 때 당신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기쁜 소식” 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과 절망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형제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와 완전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생활 방식 전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형제님이 브루더호프에 들어오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애를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결단코 뭔가 떼어낼 수 있다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요구하는대로 무엇이든지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공동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있기 위해 세상과 단절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서 생활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탐욕과 불의라는 - 현 세상 질서 안에 사랑이 없는 모든 것 - 악의 근원에서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예수님 당시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하고 자기 이익과 권세와 지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열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만연하는데, 음란과 증오와 알코올중독, 빈곤, 청소년 범죄, 정신 질환, 폭력 범죄 그리고 끝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주의의 열매이며, 비기독교적인 사회의 열매이고, 현 세상 질서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불러내신, 지금도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

에서 불러내셔서 함께 - 성령님만이 홀로 다스리시는 - 하나님의 도성을, 숨기우지 못하고 산 위에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도성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 7:16-18

복음서는 우리에게 열매로 그 나무를 - 혹은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삶의 열매는 단지 전도하거나 설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요 13:2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 말이 아니라 -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의 일치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마 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취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일치된 몸에서 나오는 빛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 17:21

당신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면 형제들의 단체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 있는 삶은 살 수 없지 않냐?” 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삶” 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요청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인격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단체” 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평가받고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에 우리 삶을 완전히 순복함으로써 말씀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 공동체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리기 위해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떨쳐 버린다는 것 -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교만과 자기 뜻을 버리되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장을 받으려고 했던 전반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일은 갑자기 불 타오르듯이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함께 살다 보면 교만과 자아 연민과 거짓 경건과 같은 것들이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악들이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벗어 버려야 합

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이런 투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을 발견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 타오르고 일치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서로 융합할 때에는 어떠한 곤고나 투쟁도 그리 힘겹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어렵고 고달픈 투쟁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생활은 끊임없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대단히 역설적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무미건조함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하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마 6:24

우리는 물질주의 - 돈이나 그 밖의 물질적인 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위험성을 항상 주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물질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 물질은 마땅히 교회의 사명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영혼이 타락함으로써 물질적인 것이 인생을 파멸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또 교회와의 관계가 살아 있다면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는 감언이설로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 방식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도 있고 가정과 일터, 일용할 양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세례파와 웨이커교도, 그 밖의 많은 근본적인 종교 운동의 역사를 미루어 보건데, 우리에게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 6:21

공동체 안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데 한 가지 치명적인 위험은 돈 -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선지자인 헤르마스는 자기 토지와 자기 집, 그 외 세상적인 가치들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어리석고 가련한 사람아, 이 모든 것이 네게 속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는가, 네 천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는가?” (에버하르트 아놀드 엮음, <The

Early Christians> Rifton,NY: Plough,1970,p.285)  
우리가 물질을 공유하고 돈 주머니를 나눠 쓰에  
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  
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눅 9:58

자신을 스스로 어느 집단의 사람들과 하나로 결  
속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수련자가 서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하나님  
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형제들에게 순복할 자세  
가 되었습니까?” 여기 질문은 하나님께 혹은 그  
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스  
스로 어느 집단의 사람들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언급한 헌  
신 -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형제들에게  
순복하는 것의 의미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일 계명 -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  
라 - 을 잘 알고 있고 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  
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를 미  
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  
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을 따르  
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 22:39

요일 4:20

한편 여기에서 “형제들에게”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을 헌신하는 것, 무조건 자신을 어느 누구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그런 형제들이 그릇된 길로 - 아주 은밀하게 빠져 나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집단들은 첫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어느 정도 경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 율법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면의 삶이 억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살펴볼 때, 실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결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오직 성령님 - 그리스도의 영 -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답은 없습니다.

*한 편지에서:*당신이 솔직하게 자신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교회의 다른 식구들에게 고백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고 싫고 하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좋고 싫어 하는 감정을 극복하도록 공동체를 주십니다.

*한 편지에서:*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실망했다는 데 대해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우리 공동체 역사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마 12:30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충성을 서원했지만 우리의 삶을 바친 것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유기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굳게 잡고 당신도 또한 굳게 잡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이때에 “나와 함께 모아 들이지 않는 자는 헤치는 사람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임으로써 예수님께 대해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 저의 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영적 생활 안에서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남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노고는 나머지 공동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시에 완전한 제자 생활의 도전을 받아들여 함께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완전한 공동체 삶을 이룬다는 것 -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연합시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결정체는 아닙니다. 결정체는 사랑입니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공동 식사를 하는 공동체는 다만 이러한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한 편지에서:*언제나 새로운 식구를 보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언이설로 식구를 “만들려” 하거나 좋은 인상을 쥐서 우리에게 합류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고통도 많고 필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의 연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십니다.

## 지도력

지도력이 분명하지 않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배는 그 방향을 안내하는 조타수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늘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인도하는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안내를 받는다는 말은 교회 전체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통하여 모든 문제 가운데 정확하고 명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문제나 모든 실제적인 문제, 내부적인 교회의 자세 등 모든 문제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어떠한 참된 봉사든지 - 지도자로 섬기는 것도 포함해서 - 몸의 한 기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우월한 사람도 없고 더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

들입니다.

참된 지도력이란 섬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력의 남용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흉포함은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헌신하되 자발적으로 의심없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독재 상태일 때 사람들은 악이라고 느끼고 내심으로 거부하지만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는 자들의 형제 관계 속에서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은 영혼을 살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형제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들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형제들의 모습이 본래부터 불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맙시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면 이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인 사람을 보고 눈이 되기를 바라지 맙시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 말한다면 그 권위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를 부여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교회를 인도하도록 임명된 어떤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데 그 권위는 사람을 억압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너무나 잇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재삼 재사 겸손하기를 구해야겠습니다.

*한 편지에서:* 말씀의 중(목자,사역자;브루더호프의 지체들의 안팎의 강건함을 위해 섬기고 돌보는 자로 형제들이 만장일치로 뽑음. 이 용어는 기독교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력은 섬김이라는 후터파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에게는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거나 어떤 진리를 가로막는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도로서 어떤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맡은 일은 모두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 무척이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말씀의 종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 전체를 어떠한 왜곡됨이나 변질됨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 10:26

딤후 3:10-11

딤후 4:7,17

눅 12:48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종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었다고 누가 느낀다면 마땅히 그 지도자는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지체들의 모임이 끝난 후에 어느 형제가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제게 묻기를 “형제님의 분노가 참으로 성령님의 분노였는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분노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다시 모임을 소집하여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이 권위의 자리를 남용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지적해 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구속받는 형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묶인 교회 봉사 - 가르침이든 상담이든 또 그 무엇이든 -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저는 그런 일에 간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 결속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몸을 지배하는 힘을,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권력을 인간이 갖는다는 것만큼 제가 증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이러한 악과 싸울 것을 제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 부지중에라도 사람을 지배하는 데 권위를 사용했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저는 깊이 회개하겠습니다. 개인이 쥐고 있는 권력은 살아 있는 교회의 최대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8:3-4

“너희가 변화되어 작은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은 심령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 모두 지극히 작은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 장로나 재정담당자나 누구든지 - 모든 지체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에

마 18:3

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지능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영이며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어린아이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계시된다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결정적 요소입니다.

마 11:25

*한 편지에서:* 마지막 지체들의 모임에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정말 문제가 컸습니다. 사소한 말 씨름에 우리를 소모시켰습니다. 제게 주어진 장로(Elder)라는 직분에 제 자신이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언제나 긴장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 자신은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제각기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놔둔다면 그 역시 도움이 안될 뿐더러 하나님의 영계서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특별한 책임이 맡겨진 사람 - 예를 들어 말씀의 종이라든가, 공동체 가사 책임자라든가, 재정담당자 혹은 역할 분배자, 공장장 - 이라

면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하인 부리듯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지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어른들에게 있어 겪게 되는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마다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 - 어떤 사람은 마음 한 구석에 두목처럼 행세하고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 그것은 엄청난 악의 시발이 되어서 결국 막대한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형제와 자매들로 하여금 하인처럼 느끼게 하고 그런 대우를 받게끔 자기 권위를 사용한다면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두목처럼 위세를 부린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용기를 내어 저지해야겠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요 21:15-17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위탁한 영혼들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무리를 위탁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양의 섬김을

맡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영혼들을 지배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 살인죄와 방불한 - 극악한 죄가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는 인간적인 명예를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당부하는 것은 그가 누구든 간에 절대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영예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추앙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분과주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과의 지도자는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는 끔찍한 망상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추앙하는 경향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권력들과 영들이 굴복하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을 안수하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시도록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모든 피상적인 것들, 우리를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녹아서 없어지도록 구합니다. 예수님

만이 홀로 주관자이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오,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그에 근사한 어떠한 인간적인 빛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종에게 인간적인 빛 - 교만과 방만함 - 이 들어 있다면 그 빛은 틀림없이 소멸되고 맙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빛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그분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진리에 굶주리고 생명수에 목마른 자들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자신의 명성을 쌓고,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요 15:4

개인이고 공동체고 예수님과의 연합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교만과 자기 영광에 싸여 독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악마의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죽음으로 끝

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은사들

*한 편지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일과중의 가장 중요한 행위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거나 형제들 관계를 분열시킬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실 때 이것을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지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조직되었는가, 얼마나 바르게 행동했는가가 결코 아닙니다. 주린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맞이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는지 - 다시 말해, 사랑과 긍휼로 행동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결코 간과하지 맙시다. 사랑을 나누는 말과 행동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마 25:31-46

은사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

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은사가 너무 많아서 단순한 육체 노동하기에 너무 아깝다고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요청하는 섬김이라면 어떠한 섬김이든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겸손하지 않다면 또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마 25:14-30

달란트 비유는 교회 안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인 것 같습니다. 달란트란 형제 자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믿음, 병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지도자에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요도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한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눈이 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두 개의 각각 다른 기관일 뿐입니다.

고전 12:8-10

어떤 사람들은 구별이 없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 25:24-30



사람은 자기가 공정한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주인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음만 강박해졌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미움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엄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공정한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았다고 느낄 때, 시기가 생기고 사랑이 없어져서 - 그리스도의 몸에서 갈라지는 사태까지 벌어져 - 전혀 그리스도의 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비유에서 주인은 “차라리 은행에 그 돈을 넣어 두었어야 했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최소한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라” 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묻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지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는 지적인 일만을 할 수 있다고 - 그게 아니면 “자기 달란트를 묻어 두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어느 자매가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의 달란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 우리의 자연적인 달란트를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은 편지에서 타고난 재능이 아주 없다고 썼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재능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재능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전 12-13

고린도전서 12,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 지도력, 치유, 방언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이 큰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로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사랑 없이는 기계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살아 있는 교회에 필요불가결

한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혼잡스러운 영들에 대해 방치한다면, 스스로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부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는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열성을 가지고 음란의 영이나 거짓의 영을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뭔가 거짓된 것이 교회에 들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혼계한다든지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영분별의 중요성도 알아야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들을 구분짓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마 13:24-30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비유는 우리 스스로 “밭을 깨끗케” 하려는 시도가 도리어 얼마나 해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열성이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조심하도록 잘 타 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너무 많은 혼계와 지나치게 많은 권고는 항상 위험하기 마련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마 13:29

행 2:4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성령님의 부으심으로 말

미암아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신성하고 거룩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경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거룩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영에 대해서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은 방언을 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이런 말들이 단지 몇몇 사례들과 함께 나타날 뿐입니다. 여타의 많은 사례에서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감히 누가 말합니까? 오순절이 있기 30년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성령으로 충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눅 1:41,67

초대 교회에서 방언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말과 더불어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령 충만을 말하며 방언을 하는 많은 운동들 가운데 회개가 부족한 것을 봅니다.

행 2:38

성령을 받는 것과 특정한 감정의 고조 상태를 똑같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인양 그런다면 말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좌우됩니다. 성령을 받는 데 성경적인 조건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로부터의 해방 혹은 죄사함입니다.

행 2  
고전 12

*한 편지에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 경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발판으로 교리나 종교를 만드는 것은 그릇되고 건전치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보다 큰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13

사랑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공동체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방언을 사용하지만 그 은사를 자랑삼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한 것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 6:6

방언을 상당히 강조하는 은사주의 운동은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릇된 가르침을 토대로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제게 와서 자기가 방언을 한다고 말하면 저는 방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말고 산상 수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열매를 나타내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언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종교를 과시하지 말고 겸손과 사랑과 일치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고전 12-13

우리가 만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기록된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은사 때문에 영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만 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순수한 마음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하며, 더 나아가 많은 인내와 긍휼을 구해야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발달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속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변화

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성령님을 바라고, 곧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기쁨은 사랑 속의 기쁨이요, 형제 자매와 더불어 나누는 기쁨이며, 남녀 간의 순수한 관계 속의 기쁨, 민족과 나라들 사이의 정의와 평화 속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무력하며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그의 나라는 땅과 하늘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 용서

마 6:15

자기 형제나 이웃, 원수까지도 용서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말씀을 일점 일획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은 형제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분열을 낳고, 분열은 내적인 상처를 낳으며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완전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마음에 진리를 품고 사랑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형제들과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엡 1:7

골 1:14

*한 편지에서:* 참된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하여 죄를 “용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당신은 죄지은 게 아니어요, 당신 행동은 극히 정상적이라구요. 거기엔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꺼림칙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손쓸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것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마 5:23-24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위탁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이룩한 다음에야 비로소 기도도 할 수 있으며 주의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그런 상태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태를 해결하고 다시금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 문은 굳게 닫혀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마 6:15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만 우리도 용서를 받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 원한를 품은 채로 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란다면 필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마 18:18      사도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 권세는 풀고 묶는 권세이며,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있게 하는 권세입니다. 죄 용서함이 없다면 양심은 살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 6:14-15

약 5:16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죄 용서함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애로 함께 살고 또 불태워져 순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에게 ...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는 말씀은 죄를 용서하는 자가 우리가 아님을 가리킵니다. 죄사함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합된 교회 안에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지만 이 용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밝게 비춥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면 - 태양이 떠오를 때 - 밤은 낮에게 정복됩니다. 죄 용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죄 짐을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다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의미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태양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라고 하는 속죄의 능력은 살아 있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개인적인 속죄와 자유를 의미하지만, 온 세상을 위한 속죄라는 보다 광대한 상황 속에서 용서를 보아야 합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신약 성서 매 장마다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소망은 단지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불 타오르는 것,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상징인 아벨의 피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살인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손에 의해 흘려진 그 어떠한 피의 신원보다 더 크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준엄

하신 경고 역시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잘 안다 하더라도 서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도록 합시다.

골 3:15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살기 위해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주위에서만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4:27

본래 우리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또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와 일치를 찾도록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 평화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전체 피조물을 위해 평화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원한

눅 23:46

*한 편지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들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던 것처럼 버림받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한 가지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만큼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모든 혈기 부리는 것과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혈기를 낼만한 까닭 있는 사람이 여러분만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미움도 받았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원한에 사로 잡혔더라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문이 닫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만 들으십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이 젊은 시절에 그토록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고 하니 저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의 문제를 당신 아버지 탓으로 돌리

지 마십시오.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 생명과 마음의 순결함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나 또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당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한 편지에서:* 당신은 우리 안에서 이미 밝혀진 기만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물론 그런 일은 끔찍스런 일입니다. 하나됨을 갈기 갈기 찢어 놓는 아주 불행한 일이지요. 하지만 당신이 원통해 한다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경멸과 모욕과 배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서 회의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은 자신의 시기와 미움에 대해 용서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당신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전체 형제단의 용서, 곧 예수님과 또 교회와의 연합을 갱신한다는 의미의 용서는 당신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유보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노여움을 갖지는 않으나, 자신

의 회개를 더 깊이 있게 확증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형제단을 대표하여 당신의 죄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시다. 만일 그렇다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시기와 미움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당신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은 자신이 입은 상처 때문에 너무 심란해서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며, 극복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지른 나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만 멀어질 수 있지요. 모든 상처와 쓴 뿌리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편지에서:*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깊은 기쁨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상처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모든 두려움과 비관주의를 이길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기쁨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안에 있는 기쁨. 가장 깊은 의미의 사랑은 기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 일치

마 23:37

마태복음 23:37에서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청

요 17:21

원 -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 과 더불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형제 사랑과 하나됨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 것입니다.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같은 기쁨과 기대, 이보다 더 깊이 일치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 개개인이 홀로 서 있다는 것은 여간 애처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간 감옥 생활을 해야 했지요. 하지만 참된 기대가 있는 곳이라면 대개 사람들은 함께 모이게 마련입니다. 하나의 믿음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며, 서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설 때에는 언제나 단결된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 22:37-39

*한 편지에서:* 예수님의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인화된 시대에,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절대적인 일치 -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루신 그와 같은 일치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한 순간에 있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일치의 최종적인 상태에 이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자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헌신을 따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요 14-17

*한 편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나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이야말로 특별한 은사가 아닐까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는 “전쟁에 나가거라” 고 하시고, 누구에게는 “전쟁에 나가지 말거라” 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누구에게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거라” 고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마음대로 이혼하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열려 있다면 -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 하나님은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를 지배하는 다수의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 마음 안에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전 원 일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치는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은총이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에게 충성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은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일치가 진리에 대한 유일한 기준입니다. 참다운 일치가 없을 경우, 개인의 영도력(charisma) -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개인의 인격이나 특성이 지닌 힘 - 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지 강력한 특성을 가졌다거나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개인의 영도력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토대일 뿐아니라 서로에게 위협스러운 기반이 됩니다.

어느 교회의 지체들이 매번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내면 생활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각 사람의 양심이 활발해지며 그때야말로 참다운 전원 일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과 같은 종교적인 체험이나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구할 때 복음의 주된 메시지인 사랑 안의 일치를 간과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만 사랑과 일치가 없다면,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일치시키며, 사람들을 불러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도록 독려합니다. 우리의 영이 철저히 가난한 가운데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구성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독려를

마 12:30

받습니다. 성령님은 흐트러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치하게 하십니다.

행 2:37

다른 교회와 또 신앙 고백이 다른 곳과 화해하려는 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일치 -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치는 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물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여전히 장벽과 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너머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들 간의 참다운 일치의 가능성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개인적으로 예수님 - 사람이요 산 영이며 주님이신 - 을 만날 때 생깁니다.

*한 편지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양보를 통해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와 깊은 화해 그리고 회개의 열매로 비롯되는 일치의 자리를 양보가 대신 차지하여, 중국에는 심각한 악들이 번지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일치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면 서로 공개적으로 말하도록 -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이기 위해 - 약속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를 두려워해서 형제 간의 정직함을 회피한다면, 우리의 일치란 더 이상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함에 있으며, 우리는 그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깨끗케 하신, 참으로 일치된 교회를 이룩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 12:33  
눅 6:44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이라는 사회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란 살인과 불의, 음란, 불의성실 그리고 파괴입니다.

요 17:21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첫번째 열매는 일치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된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치의 열매를 나타내는 동시에 오늘날 사회에

서도 한 몫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는 맘몬 곧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 인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치의 영이 아니라 분열과 파괴와 분리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참된 일치는 형제 사랑의 삶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새로운 질서에 전인적으로 순복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급박합니다. 참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합시다. 생명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그분과 더불어 일치합시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형제 관계라면, 무지개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빛깔을 보듯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며 서로 차이점을 가진 그대로 - 국적이 달라도 -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모든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 교회의 권징

후터파 교회에서 각 지체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다시는 하나님께 대해 자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서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마 5:29-30, 9:13, 16:19, 18:8-9, 15-20; 눅 15:7-10; 요 20:22-23; 고전 5:1-5; 딤후 1:20)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 생활 속에서 짓는 작은 죄들을 매일 기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죄가 심각하다면 고백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 심각하다면, 교회의 권징이 요망됩니다.

권징은 관련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 집니다. 어떤 경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기 까지 공동 기도와 지체들의 모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그 사람은 “소 파문 (small exclusion)” 에 걸립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약 5:16



의 일상 생활에는 참여하지만 공동 기도에 참여할 수 없고, 평화의 인사도 나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 교회는 “대 파문(great exclusion)”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까지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고전 5:1-5

어느 누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범한 특별히 흉악한 죄를 고백해야 할 때,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 그 육체를 멸망시키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부인과 살고 있는 어느 사람에게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라도 파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권징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지은 사람이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용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다시금 참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히 12:15

바울은 쓴 뿌리가 자라서 전체에 독이 퍼지지 못하게 하라고 초대 교회에 경고하였습니다. 이 경고가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어떤 독성도 교회를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권징을 받은 사람이 새롭게 시작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자기 생활을 깨끗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속에 품은 죄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형제 자매를 파문에 걸 수 있습니다. 교회 권징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행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거둬들여 명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회개의 은총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전체 - 아니 전 세계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권징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지은 죄과에 일 밀리그램이라도 더 부과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화해는 파문에

걸린 사람들과 우리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권징은 어둠을 이기는 빛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개인에 있어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런 의미로 - 진정한 의미로만 - 권징을 받는다면 권징은 은총입니다.

저는 과문과 용납의 문제 - 교회 권징에 있어서 - 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사랑과 대속의 구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 상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화해는 죄 용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권징의 문제가 현대 기독교 내에서 약화되거나 무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더호프의 견해와 일반 교계의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권징의 개념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침입니다.

마 18:15-20

교회가 빈사 상태에 있거나 완전히 죽은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험담거리로 삼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 권징이 거의 없거나, 설사 있다 해도 용서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 마 5:23-24 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고 분부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 막 11:25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 친구든 원수든 간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거의 잊혀지고 있습니다.
- 마 13:24-30 밀곡 사이에 자라난 가라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흔히 죽어가는 교회를 일컫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유가 그런 교회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일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악을 용인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죄가 있음을 안다면, 그 죄는 그에 관련된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교회 권징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 전체를 잃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티나 흠이나 주름잡힌 것이 없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알곡이 있으면 언제나 쪽정이라도 있다는 말로써 악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엡 5:27
- 골 1:22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세력을 분쇄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 외

에는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교회 권징 아래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악한 생각과 감정 때문에 고심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드려야 합니다. 마음 속에서 날마다 싸움이 일어날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것입니다.

히 4:12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좌우에 날 선 검같이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이 예리함을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긍휼과 사랑과 따듯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 특히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필요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의 준엄하심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 안에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의 소금과 아울러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가

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극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사랑 없이는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예전에 “사랑 없이 형제를 훈계하는 사람은 살인자” 라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말이 있다. “진리없는 사랑은 거짓이며, 사랑이 없는 진리는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 버렸는지 살펴보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준다면 그에 대해 과민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직언을 많이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체면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존경하셨지만 또 어머니께 “여자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꼭 체면을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 2:4

*한 편지에서:* 만일 당신이 우리 안에 자기 만족이나 사랑 없음이나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험담거리로 삼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그런 대화는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갈라지게 합니다.

마 16:19

죄에 대한 용서가 교회와 연결된 것임을 신약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뭉고 푸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나 - 다시 말해 예수님께 완전히 무조건 복종하는 영 안에서 - 뭉고 푸는 열쇠가 주어집니다. 용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눅 6:37-38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선명한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또 한편으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심이 있으며 더 자비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의 권징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 세례

세례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교회인 몸과의 결합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전부와 우리가 가진 것 모두와 함께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맺는 헌약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엡 1:7  
요 20:23

하나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형제 자매로 삼아 주소서.

요일 1:7

세례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이란 마치 옥합을 쏟아 붓듯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



는 것입니다.

벧전 3:21

롬 6:3-4

세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자비로운 도움과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시는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는 자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 곧 진실의 영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 오직 이런 일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존재합니다. 이 양심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 양심이며 우리 시대의 영의 세력에서 해방된 양심입니다.

갈 3:25-27

골 2:12

예수님은 요단강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것은 실제로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의미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잠길 만한 물이 없다면 세례받을 사람 위에 물이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단계는 곧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전적

인 헌신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 복음서에는 회개하는 죄인을 극진히 환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죄에 대해 가장 날카롭게 정죄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오도록 거듭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서슴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 세례를 통해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되려고 기어 오르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죄인들에게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비천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합당치 않은 자이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부모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기 위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차라리 세례받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란 그저 생명 없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권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 아내나 부모나 자녀도 -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예수님과 나의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례를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당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유일한 보화가 되십니다.

롬 8:1-4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또 용서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살아 계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롬 6:3-4

참된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너무 남용된 나머지 다소 그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보

마 10:39

요 12:24-26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평화가 되시며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보다 크고 넓게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도외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한편으로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세상 전체의 고통과 죄가 만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주의 광활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 1:18

세례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죄가 용서되고 악마가 쫓겨 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

게도 이러한 능력은 없으며, 또 어떤 집단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예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물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의와 인간적인 선함 그리고 인간적인 공평성과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자들 - 십자가가 필요없다고 하거나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준엄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고 하셨습니다.

막 2:17

롬 6:12-13

바울은 우리가 일단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 더 이상 우리 몸의 지체를 악의 도구로 드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

해야 하고, 우리 손은 피를 흘리는 데 쓰거나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에는 우리 몸 전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으로 음란함을 통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을 통해서 그럴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미움과 쓴 뿌리를 통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신발끈을 잡아 당겨서 진흙탕 속에서 빠져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씨름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만 우리는 결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악을 쫓아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한 깊은 내적인 경험을 하게 됨에 따라 그 유혹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탐내지 말라” 는 율법만 가지고 있고 마음 속에서 악한 욕망이 충동질한다면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자신의 몸을 찢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이 찢겨져서 바치는 외적 상징이자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약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고 그분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와 더불어 순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실재입니다.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고전 10:16-17 각기 다른 밭에서 자란 밀곡이 가루가 되어 하나의 빵이 되고, 또 여러 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각기 다른 나라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서 일치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자기 중요성을 희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주의 만찬은 일치의 식사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식사는 온 세상을 -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 - 대속하시는 용서의 영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의 충성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벗고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의 마지막 저녁에 어떻게 만찬을 세우셨는지 기억할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희생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땅히 자기 생명을 희생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편하게 지낼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스승에게 한 것같이 제자들에게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5:18-20

주의 만찬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과 사랑을 얻게 하고 서로 일치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사실 주의 만찬은 매우 간단한 식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기념하여 만찬을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

입니다.

고전 11:29

바울은 기념 만찬에서 합당치 않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짐스러운 양심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느낌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 임하는 내면의 자세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느꼈던 동일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출 3:5

초대 교회에서 믿는 자들은 자주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었는데, 그리하여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있곤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관계 속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을 기념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초기 재세례파 지도자인 예르그 블라우로크(Jorg Blaurock)는 만일 주의 만찬이 자주 거행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형제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전 11:26

주의 만찬 가운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가장 깊은 의미의 일치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관자가 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혼신을 다해 예수님을 - 그분의 길과 삶을 - 사랑합니다.

참조

요 12:24-25

신약 성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때로 매우 고통스럽고, 오랜 씨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그리로부터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심판하시며 놀

라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 사랑과 결혼

###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가 생명을 얻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며,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기보다 가장 낮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과 영혼에 괴로움이 많겠지만,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은 그 영혼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의 삶이 사랑으로 지배되기를 바라며, 자기를 먼저 섬기기보다 다른 이를 먼저 섬기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대한 근원되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모든 것에 앞서 - 결혼 생활보다도 - 주님께 대한 사랑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항상 결정 요인이라면 육체를 떠난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관계이며 영혼과

영혼의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영혼이 없다면 몸은 인간이라는 형태 - 단지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몸을 경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몸은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미소나 반가운 말 한 마디에 반짝이는 눈, 손의 따뜻한 감촉 등이 뜨거운 포용을 하게 하고 결합의 최종 단계인 애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몸은 가시화된 영혼인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혼을 한다거나 가정을 이루는 데 충분한 기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녀가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 관계가 되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하건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은 성적으로 가장 매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 만한 동반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

혼이 육체적인 매력에만 근거한다면 그 결혼은 쉽게 깨어질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생의 동반자를 생각하신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연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예수님 앞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 나아가게 하고, 또 두 사람 모두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결혼에 있어서 바른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육적인 만족과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정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른 영혼과 결합시키는 생각을 한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마음을 여는 법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서로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함께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복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약혼

을 해서 회의를 생긴다면 불행한 일이지요. 더욱이 한번 결혼한 다음에 회의를 생기면 더더욱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겠지요. 참으로 서로 속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명백히 알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지내느니 지금 한번의 갈등을 끝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한 편지에서:* “이 남자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인연이 있다면 왜 제가 그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요?” 당신의 물음은 좀 반항적인 데가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어떤 이를 비난하는 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랍니다. 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든, 그런 사람이 누가 되었든 제가 말씀드릴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마 5:28

예수님은 정욕적인 시선까지도 “마음 속에 간음한 것” 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결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사이의 일

치이라는 거룩하고 놀라운 선물을 보호하시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결혼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제일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도 하나요, 교회의 순결함 안에서도 하나로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혼이 하나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영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 사이의 결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사랑이 있고, 서로 친밀해지면서 특별한 기쁨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는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실하며 관계의 순결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신체적인 결합으로 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러한 결합이 불륜으로 말미암아 깨졌다면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혼의 모든 것이 다 와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맨처음 축복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소망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간음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른 질서 안에서 연합을 경험



하는, 첫째는 한 영 안에서 일치요, 그 다음은 마음과 뜻의 하나됨이며, 다음은 신체적 결합으로 일치를 이루는 부부에게 - 젊은 나이가 들었던 - 임합니다. 마음의 하나됨은 거의 없고 영의 일치도 극히 조금밖에 없는 상태에서 몸만 하나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 5:27-32

우리는 예수님이 정욕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적인 부도덕함에 단호히 맞서야 하겠습니다. 브루더호프 지체들은 이혼하고 난후 재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재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헌신된 일원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신의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은 혹 생길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혼 서약은 생명의 서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는 말씀을 함부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마 19:6

참된 결혼의 기초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살아 계신 능력으로 결혼 관계 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께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엡 5:23

머리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남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눅 1:38

여자의 사명은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는 “주의 계집종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한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창 2:18

제일 큰 의미를 들자면 결혼은 공동체로 인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두 사람 - 남자와 여자 - 이 창조되었고 또 다시 결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고전 13:4-6

부부가 겸손하고 열린 마음만 갖는다면 결혼 관계는 지속됩니다. 시기와 자만은 언제나 결혼 관계에 침투하여 서로를 갈라 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를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짜증도 화도 내지 아니하며, 잘못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용서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면 날마다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용서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짝 어저기에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배우자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사랑은 소망과 믿음과 더불어 당신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성실성은 남편과 아내 각 사람의 내면 생활에서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편으로 영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의 사랑과 다른 한편의 성적인 결합이라는 사랑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참된 결혼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때 그 신체적 하나됨은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관계는 결혼 관계라 할지라도 죄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합법성이 육체를 위해 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나누는 특유한 친밀감과 성적 인 부분의 신비로움 때문에 부부가 서로 완전히 순복할 때에는 비할 데 없는 하나됨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일치는 결혼이 이루는 사랑의 유기적 표현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목표가 서로 자기를 내주는 데 있습니다. 한쪽은 다른 쪽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비밀을 지키되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주된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마땅히 예수님께 두 배로 헌신하게 되지 결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마땅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 놓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며 또 절박한 필요와 역경 뿐만 아니라 기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두 사람 모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혼 서약은 부하고 가난함이나, 좋고 꺾은 날이나 변함없이, 신실함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며 전생애를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퍼붓는 - 자신의 불만을 하찮은 일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

람은 사랑하는 데 열려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설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기울인다 해도 원수 마귀는 언제나 사소한 일을 통해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잔소리가 시작되면 사랑은 점차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면 결혼 생활이 역경을 통과할지라도 매일같이 사랑을 경험하되 날마다 새로와질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은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아내의 처지와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라면 마땅히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맡은 남편의 첫째 임무가 아내와 자녀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이해가 없이는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으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한 편지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부인 간의 문제가 마음 가운데 선명해질 때 당신은 양쪽 모두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4-7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고전 13:4-7

사랑은 인내하며, 사랑은 친절하고 아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도 자만도 하지 않고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남의 죄를 고소하라는 듯이 쳐다보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이 대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사랑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으며 결혼 생활 속에 사랑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편지에서:*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부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남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또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엡 5:22-24

부인께서 부담을 안고 계시는군요. 당연한 일이지만 치유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마음 깊이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형제님, 하나님 앞에 절대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 보십시오.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 부부를 함께 결합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함께 붙들고 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보호하실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 성

결혼 관계에서 성의 부분이 결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성의 중요성이 불건전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성적 충동이라는 동물적인 의미로만 지나치게 보고 있어서 성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성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차이를 단지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유물론적입니다. 여성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몰두하기를 바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주고 견디며, 임신과 출산을 하며, 양육하고 보호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악의 일면입니다. 한편, 남성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들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기보다는 취하고, 침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 28:19-20

참된 남성은 연약한 인성에도 불구하고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치 군주가 된양 거드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도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가서 모으라!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기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세례를 베풀라.” 그렇다고 여성이 이러한 사명에서 제외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특별임무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참된 여성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도적 진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남성도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동물로 분석합니다. 프로이드는 많은 면에서 옳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요인을 망각하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보



고 사람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성적인 충동으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부자 관계, 모자 관계까지도 성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충동들 - 성적인 충동만이 아니라 소유욕과 권력욕 - 이 있다고 하는 지적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결론 짓는 것은 그릇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엡 5:32

두 사람의 결혼 안에서 사랑과 일치하는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고 합니다. 사랑과 일치하는 결혼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룩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또 영원성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육욕이나 성의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영혼은 더러워지고 병들게 됩니다. 성과 사랑은 분명히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결혼 안에서 성과 사랑 사이에는 깊은 조화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성은 본질적으로 친밀성과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 중에서도 제일 심오하고 가장 영적인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출산을 목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한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믿는다면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와 같이 제한된 의미의 목적만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신체적 경험과는 달리 성의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오합니다. 육욕은 물리적인 인간 존재의 근저까지 침투하고 영혼 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범위를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경험으로까지 미치는 깊이와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남자가 정욕에 굴복하면 탐식 따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럽힘을 받습니다. 성적인 욕정에 탐닉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과 내면 존재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하여 그 중심이 되는 영혼이 타격을 받으며 손상당합니다.

육욕 중에서도 성의 부분은 인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다른 어떠한 경험 영역에서도 영, 혼, 욕이 동시에 만나는 일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영, 혼, 욕이 함께 만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생활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친밀성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성이란 그 자신에게는 비밀

스러운 것인데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면이 본인의 느낌에 따라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이 드러날 때마다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것이 나타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밀스러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부분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면 수치스러운 것이지요.

사람이 모든 수치감을 상실한 채 자신을 경멸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태가 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순결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의 부분은 개인의 비밀이 담긴 것이므로 그것이 열려질 때에는 결혼 안에서 오로지 단 한 사람에게 자신의 완전한 순복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성의 혁명은 인간 내면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절대적인 순결과 결혼에 대해 충실함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남녀 간의 성적 관계라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수줍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성이란 그 특유의 성질 때문에 두 가지 매우 상이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 경이롭고, 신비로우며, 고결하고, 순수하며, 평안함을 주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경우 회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이 적나라한 욕망에 절대 굴복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였을 경우, 인간의 영혼은 병들며 성은 악의 점령지가 되고 마귀적인 힘에 지배당합니다.

신성모독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죄가 됩니다. 만일 제가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학대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의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 혼, 육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성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며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뿐 아니라 초대 교회 교부들도 강력히 반대하던 바입니다.

단지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성욕을 누구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청각을 부인하지 않겠지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시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봄 내음과 꽃 향기를 맡을 때 후각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성은 몸서리쳐지는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려 한다면, 당신은 비정상적인 것에 휘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기초 없이 사랑과 성이라는 불에 너무 지나치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이 쉽게 성관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내면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결혼에 대해 충실함을 지키는 것도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도 신실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편지에서:* 성이란 결혼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혼외정사는 그야말로 죄악입니다. 성경은 혼전이나 혼외 순결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만일 당신이 순결과 정숙함의 길을 항상 따

른 것만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 하시길 바라십니다.

## 독신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큰 희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누임 없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다는 것은 큰 은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자가 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을 수 있습니다. 오롯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분과 더불어 완전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를 혼인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일치되도록 영혼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자신을 주시되 나누이지 않은 채로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나타나는 내면의 온화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많은 열매 맺음,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고결하고 가장 친밀한 영혼의 결합은 어떠한 공허라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수년 간 - 심지어 수십 년까지도 - 감옥에서 고초를 겪은 역사상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사랑과 일치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눅 14:16-20

누가복음 14:16-20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나눠지지 않은 완전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채우시고 또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그분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은 위험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더욱더 그 위험성은 커집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어머니, 아버지, 친지, 자녀, 그리고 생활 공동체와 결혼 관계의 사랑 까지도 쉽게 우리의 사랑을 빼앗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희생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 편지에서:* 하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도록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독신의 부르심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카톨릭 배경을 가진 사람만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

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둘러 독신 서원을 하는 것이라면 저라도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사전에 아주 신중히 고려해야만 하겠지요.

*한 편지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문제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의 내면의 필요와 그 문제로 고심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마귀 생각입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한 가지 큰 은사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큰 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제일 큰 은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한 편지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커다란 고통과 많은 눈물, 마음의 고뇌가 없이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도 이러한 갈망이 충족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삶의 공허함과 허무감이 얼씬거리지 못할 만큼 충만함과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오직 예수님께 깊이 헌신함으로써 또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느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슨 길이든간에, 생이 다하는 순간,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잘 손질한 등잔을 가지고 준비된 처녀와 같이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 가정 생활

### 아이

막 10:14-15

예수님은 어린아이 -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과는 달리 어린아이는 분열되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한 인격입니다. 상처받기 쉬우며, 또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또 서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존경할 것이며, 우리 역시 아이들을 존중하고 한

참조 마 18:3-6

아이의 탄생과 존재에 대한 놀라운 신비에 경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경외감이 참된 가정 생활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마 18:1-3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여쭙되,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한 아이를 불러 저희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 ”

눅 12:7  
마 18:10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마다 그 머리카락이 다 하나님의 세신 바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을 왕래하는 수호 천사가 모든 아이마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 18:6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다움 - 즉 순결한 마음 - 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아이를 죄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심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생활하시고 일하셨는지,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지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천사들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입니다. 천사들의 세계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심오한 방법으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도 없는 정규 기도를 하라고 교육시키기보다 - 억지로 하지 말고 - 불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노래와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우선적인 과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아이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고픈 내적인 열망이 아이들을 또한 일깨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또 성경에 대해 어린아이같은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가 되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길바닥이나 돌투성이 길가와 같고 또 가시덤불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설교한다고 해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흔히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6주 이상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갖추고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 교육에 주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권한입니다. 가정이 교육의 기초 장소입니다. 학교나 그 밖의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단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보완할 따름입니다.

아이의 내적인 안정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십계명이 괜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 그 아이는 훗날 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한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서

출 20:12

신 6:13

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깊은 경외심과 존경심, 깊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한 편지에서:* 아이의 일생 중에 4살 때까지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3, 4살 때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면 싸움은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연령에서 아이 자신의 의지가 우세하다면 나중에 자기 뜻을 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편지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아이들 교육에 관하여 양극단을 모두 경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시계추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움직이는 것처럼 엄격함과 부드러움, 침울함과 흥분에 찬 기쁨, 부정적인 접근 방식과 긍정적인 접근 방식 등, 사실 이 모두가 실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인내와 기쁨, 사랑의 투명함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착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그런다고 해서 불쾌하게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

을 위해 희생할 자세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 아이의 문제있는 행동을 보면 당신은 완전히 무력해진다고 이유를 들어 말합니다. 변명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모두 무력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당신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우린 별 수 없어” 라고 푸념하는 것은 죄입니다. 부모로서 당신은 아이를 도와 주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투쟁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고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 자녀들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과 화목하지 않은 것에 걱정이 많으신가 보군요. 이런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나가십시오. 당신 아이들은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쓰신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신경질을 부리고 무례하게 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유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셨는데 그 유약함을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사나운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그 어느것도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들

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강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저는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패를 되풀이한다 해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싸워 나가십시오. 아이가 타락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엄격하게 대하십시오. 다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 아이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준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익이 있지만 뉘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소서.

*한 편지에서:* 당신 아들에 대해 보내주신 편지를 고맙게 받았습니다. 두살박이 아이의 행동으로서서는 매우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자랄 때에는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살 난 아이가 언제나 순종적이라는 말



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크면서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제게 엄격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단호하신 분들이었고 한번 작정하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한 편지에서:* 세살박이 아들에 대한 문제로 편지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연령의 아이들은 신뢰 가운데 나누는 내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준엄하게 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고, 단호하며, 친절하게 부모의 권위를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 딸이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심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 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딸 아이를 도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비주의자인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 최악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깨뜨려지고 회개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

던 헌신적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믿음을 당신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도 항상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큰 사랑으로 당신께 문안드립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 시대에 한 아기의 탄생과 같은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단순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되는 것은 바람직한 경향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또 어머니의 자궁에서 어떻게 두 세포가 성장하는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첫 미소를 어떻게 짓는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또 얼마나 풍성한 경험을 할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원의 실재 앞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이나, 출생,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루어야 합니

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꼭 새치름한 아이로 길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출생과 죽음은 하늘의 세계와 결부되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아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성향을 물려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 흠치기, 부모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것, 성적인 불순함 등 어떤 모양의 죄든지 아이들 스스로 맞서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제멋대로 자라나는 것은 아이의 성격에도 해가 됩니다. 무른 태도에서 이기심이 초래되며 이기심은 늘 죄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아이와 부모 혹은 아이와 교사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감정으로 엮어진 관계라면 거기에서 유약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아이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이따금씩 치근덕거리는 아이들은 흔히 망나니 짓을 하는 데, 그러면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할 때에는 거짓말도 곧잘 내뱉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 아이들의 관심은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작은 처벌을 줘서 일단 문제를 매듭짓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관심을 갖도록 도와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기 경험대로 많은 것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느낌과 경험들을 절대로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주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시기적으로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데 이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죄로 오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이 순결하고 흠없는 상태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미심쩍어서 캐묻는 경우가 있어도 지나치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거짓말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 특히 성적인 면에서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은 대단히 불의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의 과실을 따질 때, 너무나 쉽게 그 아이의 성격과 미래를 냉혹하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 아이가 새로운 데 관심을 쏟고 기쁘게 새 출발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든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그 아이의 마음과 통하는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아이든지 마음 속에는 순수한 양심을 갖고자 하는 바램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바램을 지지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이의 양심이 괴로운 만큼 그 아이는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어린아이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아이는 어린아이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회심하여 죄 용서함을 받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잃어 버린 어린아이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 편지에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배우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듣는 것을 통해 배우고, 어떤 아이는 느낌을 통해 배우며, 어떤 아이는 보는 것을 통해 배우는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아이 한 아이마다 적절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다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압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주안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과 공부는 마땅히 해야 하며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아이같은 마음까지 희생시키면서 혹은 그 아이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행해진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교사들이 자신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선택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만심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 참으로 어린아이같음과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 (어느 소년에게 )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마음에 귀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 청소년

청소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심각한 음란과 패역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의식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해도 말입니다.

부모는 갓난 아이 때부터 아이들과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여섯 살쯤 돼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뒤늦게까지 방치한다면 부모는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야 보겠지만, 정작 거짓말과 추잡함과 불순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아이들의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응답과 존경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힘들게 발달 시기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삼가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회심과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만 회개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불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과 통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불꽃마저 꺼졌다면 다만 기도하며 회심하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은 말씀씨에 설복되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 아들은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청년 남녀 간에 서로 끌리게 하는 자력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하겠군요. 그렇지만 그 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훗날 하나님이 결혼 가운데 예비해 두신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부 간의 신체적 관계에 대해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사실적인 면을 아들에게 전해 주는 데 훌륭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아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한 편지에서:* 저 같으면 당신 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또 지금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하면 이 후에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려운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성이란 결혼 관계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주



실 한 여인을 위해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꺼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빛과 그분을 경외함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언제나 개방적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적이라든가 욕정적인 것을 묵인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마귀를 용인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한 편지에서* : (어느 17세 청년에게)

사랑하는 형제님,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하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자만에 찬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교만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님의 일상 생활은 자기를 중심으로 맴돌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기 중심적인 데서 돌이키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요. 헌신과 겸손의 본을 보이십시오. 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편지에서*: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심리학

분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대가로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그 무엇이 유익하리오?” 저는 그들의 영혼이 걱정됩니다.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육적 본성을 중심에 놓고 본성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육적 본성을 무해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심성만 가르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한 편지에서:* (어느 장애 아동에게)

연약한 몸이지만 살아 있는 영혼이 있군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세상엔 몸은 튼튼하지만 영혼은 마비된 사람이 많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랍니다. 힘도 있고 몸도 건강한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금씩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을 굳게 잡으세요.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에 결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기에도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고 또 겸손하기를 바란다니 감사

드립니다. 온갖 시련 중에도 이와 같은 열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시련은 분명히 인생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절함이나 역경 없이는 제자로서의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굳게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상처 입으신 손이 당신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브루터호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용서만 생각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뭇 다른 어떤 것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자매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경솔한 젊은 여자의 도구에 불과하지요. 자매님은 지금까지 자기 위주의 생활만 해 왔습니다. 자매님께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한 편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대가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심지어 그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신은 세상에서 또는 고등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악에 맞서야 하겠습니까. 당신을 유혹하는 것들, 특히 음란한 것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 편에 선다면,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구역질나도록 싫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형제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한 편지에서:* (어느 열세 살 아이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나이가 됐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중립성을 가지고 울타리에 걸터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요 10:14

*한 편지에서:* (어느 대학생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양은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양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내적인 쇄신을 위해 고요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는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피곤케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에 쫓기며 매일같이 일을 해야 하지요. 머지 않아 학위를 따 시겠지만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품은 좋습니다.

**가족의 유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구주 되시며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신부는 교회에 비유되고 신랑은 그리스도에 비유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되 온화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준엄하게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는 가정 생활 속에,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약한 감정주의가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주의는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명료함을 허물어뜨립니다.

계 2:16,23

엡 5:22-33

*한 편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는 당신이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공경하는 것과 같지요. 한편, 아버지의 방식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눅 14:26

진실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워하라” 는 말씀에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오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여기 “미워하다” 는 말씀은 그릇된 것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지침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는 계명과 더불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부모님께 대해 바른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출 20:12

마 10:37-38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조차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완전히 자기를 잃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집착하고,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 자녀에게 애착

마 10:39

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저는 부인께서 장성한 자녀들을 너무 엄마와 단단히 묶인 관계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인의 따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장성한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자유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묶여 있는 모든 정서적인 유대 관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눅 14:26

우리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증오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니라” 고 말합니다.

요일 3:15

예수님은 우리가 가정 생활의 정서적 유대 위에 그분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듯이 이와 같은 정서적 유대는 배금주의와 뒤섞여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준엄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판결대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분명 하나님 없이는 가정입니다. 또 혈연이라는 뿌연 감정에 지배되는 가정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사이에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유대 관계 속에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 질병과 죽음

*한 편지에서:* 모든 질병은 악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질병이 하나님의 손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데 - 십자가 상에서도 볼 수 있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마귀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의 임박한 수술을 놓고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께 바라는 바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그분 손에 맡기십시오.

*한 편지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해 드립니다. 염려는 지극히 건강한 사람도 자기 몸의 맥박이나 심장 박동 소리에 끊임없이 광적인 반응을 하도록 만듭니다. 실제 문제는 죽음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당신은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원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의 숙모님은 임종 직전에 영원 세계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구나! 여기 지상 세계의 삶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구나.” 이와 같은 자세는 헌신된 삶의 결과였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되길 바라며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 같다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당신을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면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세상 전체의 필요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작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비롯됩니다. 당신의 강건함을 빌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한 편지에서:* 어둡고 두려운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두렵다면 - 자기 자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이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고,

실수하는 것도 두렵고 등등 - 당신 영혼은 병들고 말 것입니다.

“오직 참된 치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 5:14-16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몹시 아프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치유를 받으리라. 의인의 참된 기도는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몹시 아픈 사람을 위해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며, 충만한 내적인 공급과 완전한 용서를 -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 받도록 중보 기도를 합니다. 병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교회에 있습니다.

고전 12

*한 편지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치유의 은사를 모든 지체들이 다 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에는 그 은사가 부여되었다고 밝히 말합니다. 그렇게 큰 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영적인 가난함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겠지요.

하나님께서 블룸하르트 부자<Johann Christoph Blumhardt(1805-1880): 남부 독일의 목사, 저술가, 신학자/ Christoph Friedrich Blumhardt(1842-1919),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에게 주셨던 능력의 치유의 은사는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블룸하르트는 말년이 되면서 점점 더 은사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치유받았지만 육체만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칭송과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블룸하르트는 치유가 회개와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블룸하르트의 태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고요한 가운데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만일 치유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블룸하르트는 자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비밀로 하십시오. 종교적인 전시물로 삼지 마십시오. 평상시와 같이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질병이 죄는 아닙니다. 치유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잇는 것보다 병든 상태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면 기뻐하십시오. 병환 중에서 기뻐하듯이 기뻐하십시오.”

*한 편지에서:* 최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픔은 쉽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빨리 아픔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갓난 아기가 죽은 뒤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한 시간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왜?” 하고 우리는 묻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

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갓난 아기와 같은 어린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저자의 아이의 임종 직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사는 것이 뜻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뜻인지 -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후에 저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실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조건 완전히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외적인 어떤 것도 혹은 돈이나 의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을 의지합니다.

저자의 아이가 죽은 다음: 죽음은 멸망입니다. 죽음은 분리이며 이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되게 하십니다. 완전한 삶이란 완전한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됨이 창

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들이 이 일치 안에 참여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고 흩어지고 갈라지는 사람들, 분리하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은 죽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들을 영원의 세계로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매님, 부친상으로 지금도 아픔을 겪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마지막 부활에 비로소 정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 세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당신에게 혼란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두려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한 편지에서:* 그렇게 큰 아픔을 견뎌야 한다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 아이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은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

한 통치자가 되실 때 비로소 죄와 슬픔, 두려움, 고통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되기까지 - 가장 큰 날 - 당신 아이와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손 안에 안식하며 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 무엇이 옳은 대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다음 말씀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지만, 여하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 5:24-2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



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서 있는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깊숙이 다가오는 것이며 -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 앞에 열린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의 세계와 권력들과 나라들 뿐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실재들의 초우주적인 위대함을 어렵פות하게만 알 따름입니다.

요 14:2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면서 그들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무엇인지, 또 영원 속에서, 별의 세계에서, 천사의 세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

행 7:55

계 1:14

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지 다만 경이에 찬 신비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믿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 관계는 유사점이 있거나 뭔가 비교할 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그 어느 인간 관계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와 그분과 결속된 상태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지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남는 것 한 가지는 이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멀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자기 형제를 통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대로 전폭적으로 형제를 위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도 역시 임종시에 아주 가까이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 자신이 여러 임종들을 보면서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질병과 죽음에 대항하는 싸움은 우리 모두가 처한 싸움입니다. 어둠에 대항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둠의 공격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 한계에 다다를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요 12:35

## 악과 어두움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얽잡아 본다든지, 전혀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골고다의 위대함이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위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최후 심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을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악에 대항하는 싸움도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그렇게 흉악하지 않다면 십자가도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텐데 어째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셨던 거대한 악의 세력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십자가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마의 깊이와 그 은밀함을 알려 한다든지 악의 근원을 캐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사

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살인과 간음, 기타 죄악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부담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 은밀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차치하고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일단 어떤 세력에게 자기 마음을 열면 그 세력에 의해 자신의 삶이 좌우된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나찌 독일에서 살았는데, 제가 아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뭔가 무척 악한 세력에 붙잡혀서 휘둘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이 - 악에 대항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대다수 사람들은 악에 굴복했습니다.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를 장악한 것은 몇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과 마귀가 독일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와 같이 오늘날에도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달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틀림없이 심판이 선행되고, 모든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점술과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의 세력과 접촉하는 그 어떠한 형태도 철저히 거부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계시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악마의 것들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무지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점술이 마치 하나의 과학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일절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술이나 마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해하다” 고 하는 그 어떤 심령술뿐만 아니라 치유 반지나 덜거덕거리는 탁자,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각가지 미신적 행위를 거부합니다. 처음엔 악의없이 시작할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마에게 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꿰뚫고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청합니다.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하나님의 외아들의 사랑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 마음 속에 불 타오르며, 하나님의 진리는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사람들을 만지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유와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임으로써 생기는 이와 같은 자유와 죄사함은 온 세상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놀리고 버림 받은 자들이 빛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도탄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속감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만나셨던 범죄자들, 세리들, 창녀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속박당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자유케 됨은 곧 심판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벗겨지

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결코 악의 세력을 알잡아 보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악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첫째로 육적 본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둘째는 영들의 싸움인데, 악마와 귀신들에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당신의 타락은 육적 본성의 문제만이 아니며 악마와 직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 이렇다 말할 순 없지만 당신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다가 먼저 자신을 악마에게 팔지 않았다면 악마는 유다에게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일찌감치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악마가 그에게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은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 지나칠까요. 당신은 마음을 악의 세력에 열어 두었습니다. 어디서, 언제,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참으로 뉘우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참

눅 22:3



으로 회개한다면, 회개한 일에 대해 평생토록 고마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을 멸절시키는 위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었다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런 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에 반대되는 일에 헌신해야 됨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무기 사용 절대 금지 운동을 하는 책임있는 시민들의 선거 운동을 위해 일하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 운동은 훨씬 더 심층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를 제조하도록 이끈 영은 악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영을 위해 사는 것만이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개인적인 변화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정결치 못한 삶을 산다면, 불의에 대항하는 어떤 말도 꺼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 악한 사람들을 대항하는 착한 사람들 - 이 아니요 어둠의 세력들과 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 악한 귀신이 틈 타게 하는 여지를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귀신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귀신에게 여지를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귀신을 섬기는 데에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별히 헌신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귀신들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께 지극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의 위협은 끊임없이 가중됩니다. 이에 대해 블룸하르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빛의 자녀들을 낳도록 사명을 받으셨는데 사탄이 뒤쫓아 다니며 악의 자녀들을 만들고 그 악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만 자라야 하는 발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번성하리라고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스려야 하는 곳에서 인간의 세력이 대신 집권할 때 이런 일은 너무나 쉽게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실재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보다도 더 위대한 실재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무섭다면 (그런 무서움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 실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심장부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심장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피상적으로야 자기를 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악한 자에게 극심한 유혹과 시련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신뢰와 승리에 대한 벅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평화란 오직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일치된 교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인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빛으로 돌이켜서

계 1:5, 7:14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케 하십니다.

*한 편지에서:* 도움을 청하는 절망적인 외침을 들었는데 당신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당신은 무서운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에서 벗어나셔야겠습니다. 공포 때문에 자꾸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더 많은 절망감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되지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 28:20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음란함과 물질주의, 살인, 증오, 우리를 얽고 있는 용서치 않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예견하셨습니다. 일찍이 베드로에게

마 16:18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인류의 남은 고통과 아울러 아직 이 땅을 덮고 있는 마귀의 그물이 분쇄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일대 혼란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옴으로써 반드시 그 그물은 제거되리라 믿습니다.

## 영적 싸움

땅 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 한편 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와 기쁨과 죄 용서함과 공동체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살인과 질투와 야욕과 불의의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 일단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눈에 보이는 악의 행위들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단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실재가 있는데 - 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어두움과 빛, 선과 악, 파괴와 일치의 세력, 곧 죽이려는 세력과 우리를 살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점유된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가 더 강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고 말하였습

눅 11:15

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더 강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마귀의 왕국은 분열되어 멸망할 것이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매우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 혹은 연합을 이룬 어느 집단, 또 어떤 나라까지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이며 사람의 마음 또한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다면 마귀는 맹렬히 날뛰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만큼이나 치열했던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뢰 속에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권력과 통치세력, 천사들에 대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게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참다운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각각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겪고 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심판은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대속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일 뿐입니다. 심판은 사랑과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모든 브루더호프의 분위기는 사랑의 분위기, 순결의 분위기,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분위기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새로와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사랑이 우리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싸우고 또 싸웁시다.

예수님이 새로운 철학이나 종교를 만들었다는 생각은 완전히 그릇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는 그리이스나 이집트의 철학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인격이시고 지금도 인격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느 위인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냉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유혹을 받

요 6:53



요 1:29  
히 9:15

는다는 것도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냉담한 태도나 예수님을 해석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죄 용서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담당하셨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 경험한다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확고히 섰으며 지금도 서 있는 십자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아 있으며 또 그 좌우의 편 팔은 지금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한 편지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깨어납시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려 하실 때마다 마귀는 파멸시키려는 갖은 노력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그토록 순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받으셨습니다.

계 2-3

첫사랑을 가진 교회만큼 이 세상 임금을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미

요한의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상하게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회중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지적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가 깨어서 변화되어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 가장 깊숙이 제 마음에 있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면 -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가 곧 우리의 피가 되게 하실 만큼 긴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한 편지에서:* 하나님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지, 형제 자매들이 학대를 당한다는지, 교회가 피해를 입을 때 그 반응으로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하면 잘못이라는 생각에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낼 때 그저 조용히 정신만 가다듬고 계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잔학한 행위나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시키는 그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갖는 데 대해 저는 저의 전 삶을 걸고 저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론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성향은 크

나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투명성과 결단성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사랑을 있는 힘껏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요 15:5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친다면 우리는 깨끗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별하며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질 필요가 있고, 농부의 칼이 우리 마음 속을 잘라 내며 도려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정결함과 이와 같은 칼과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농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 5:1-2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깊이 잘라 내시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얼마나 자주 가로막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잘라 주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분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서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앞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가장 신임받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실패하였고 나가서 비통해 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 이상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 18:15-27

우리는 자신이 실패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암담하게 본다거나 삶의 밑바닥까지 다 날라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심판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것이며 그런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데 이용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마땅히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계 3:1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말은 사데(사르디스)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교회가 죽었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의 소금과 같이 그 맛을 잃고 밖에 버리워져 밟히고 말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잠에 취해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 몇 사람이라도 그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 브루더호프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무감각함에 대해,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에 대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회에게 또 개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 5:13

복음서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만일 소금의 맛과 힘을 잃는다면 얼마나 위험할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소금은 맛이 없는 것에 맛을 주고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 시대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 영을 방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와 또 평화가 없는 데 평화롭다고 말하거나 사랑이 없는 데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매우 준엄하게 경계를 시키십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정결케 되어야 하며 어떠한 어두움도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저에게 많은 긴장을 줍니다. 골로새서 3:12-17에서 바울은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 마음 가운데 이해와 용서와 친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 중에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두움도 교회의 생명 안으로 침입할 수 없음을 보다 분명히 해 줍니다. 하나님, 이러한 긴장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 - 오직 당신의 방법을 찾

골 3:12-17

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되며, 기쁨이 충만하고, 헌신으로 가득차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분위기 안에만 있으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찾아가서 과거에 상처를 주었거나 사랑에 흠집을 낸 데 대해 용서를 청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거침없이 말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괴로운 일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요일 3:8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도와 줄 부하가 되는 수백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탄도 자기 부하로 많은 천사 - 악한 영들, 귀신들 - 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 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악과 불순한 감정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귀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살인과 시기와 불신과 권력욕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식보다 더 깊고, 우리의 평소 느낌보다 더 깊은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깊은 곳에 임하셔야 합니다. 깊은 내면의 싸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모든 불신을 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 안에서 사랑을 찾고자 하는 모든 기대를 말끔히 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되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는 사람들 혹은 잔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용감히 맞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이런 죄를 여러 번 범



했는데 그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제 자신과 교회 전체에 괴로움을 주는 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대항하는 전체 교회의 싸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싸움입니다. 마침내 전우주적으로 벌어지는 훨씬 더 거대한 싸움, 곧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빛과 음악과 조화의 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어두움과의 모든 싸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만일 우리가 소금이라면 악과 타협하는 데 동조하는 하나님의 외교사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 되겠다고 결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이 되도록 합니다. 폭력과 불의와 미움과 음란함에 반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아니라 행위로 증거해야 합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 주의 만찬 헌약식에서

(주의 만찬 헌약식은 하인리히 아놀드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여러 주요 현안 중에서 형제됨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년 간 고심 끝에 1975년 12월 30일 세례받은 브루더호프의 모든 지체들의 추인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아래 일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경외는 삶을 살 것을 헌약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든 형태에 불경함에 대항하여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린이 안에 살아 있는 예수님의 순수한 영에 대한 불경함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함을 상실한 나이든 어린이들을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정서적 육체적 잔인함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 조종하려는 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시는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에 속박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케 되도록, 또한 어두움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밝히 드러나 회개하도록 예수님의 빛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배금주의의 영과 또 배금주의와 연결된 모든 욕심과 거짓 사랑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위대함과 허영의 각가지 형태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교만을 포함한 모든 교만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용서치 않음과 시기와 미움의 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대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잔인하게 대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탄적인 어둠에 관한 호기심이나 마술 등 모든 형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과 행동이 정결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되신 것같이 우리도 하나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세상을 위해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니요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 관계가 거룩해지도록 그리스도께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빛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 17:21

## 세상의 고통

딤후전 6:10

요 8:44

고통의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소유욕과 배금주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은 사탄의 영이며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거기에서 어둠과 죽음이 비롯됩니다. 그것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희안한 사상들을 가지고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의 열매는 불의와 죽음이며, 우리 시대뿐 아니라 시대를 통틀어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사실대로 보자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죄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이며 다른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겪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자청해서 고통을 겪고자 할 것이며, 아이들, 노인들, 정신이상자, 버려진 아이들, 굶주린 자 등, 이들의 필요를 다소나마 느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

상의 고통만 바라본다면 시각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되 고통은 세상의 커다란 죄와 허물의 결과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필요 가운데 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중에 고통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울 한쪽에 세상의 악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고통을 올려놓는다면 평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죄와 고통이 함께 수반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죄인데 그것은 또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을 모두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필요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구하고 싶어하시되 참으로 애타게 바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죄로 말미암아 - 그것은 우리 죄이기도 한데 -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보지 않고서 세상의 필요만을 말한다는 것은 불손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찾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그분이 해결책입니다. 모든 죄와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노라면 돈이 엄청난 세력을 잡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도전을 느낍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초대 교인들은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 도시 전체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에버하르트 아놀드, <초대 그리스도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자른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급박합니다.

마 25

*한 편지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또 세상의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 우리는 덜 먹고 덜 써야 하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주 중에 하루나 이틀을 금식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적어도 한 형제를 선정하여 밖으로 나가서 핍절한 사람을 찾아 음식과 의복을 주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등 구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한 편지에서:* 당신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도 없고 아둔하기 짝이 없으며 무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숙사에서 트림프도 즐기며 여유있게 보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는 생각만 하고 남을 괘시하는 등 조금의 여유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 줄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심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핍절함을 드러내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이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을 억압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핍절한 상태에 대해 그렇게 냉담하고 우월감에 찬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는지 깨닫지 못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런 태도였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버림받아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한 편지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브루더호프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집 없는 사람들을 데려 오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들과 함께 일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잠잘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합니다.

한번은 히틀러의 치하에서 독일 비밀경찰이 브루더호프의 손님을 맞이하는 사역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이 허락지 않아도 집 없는 사람에게 문을 닫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하루밤 묵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노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전부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

고전 13:3

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브루더호프가 시작된 첫 해에는 미혼모가 머물 곳을 찾아 우리 집에 오곤 하였는데 그럴 때면 부친께서는 적어도 이삼 일은 지내게 해 주셨습니다. 흔히 미혼모들은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머물 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도 함께 데리고 와서 우리와 같이 지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와 절도범, 경찰에 쫓기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한번은 감옥에서 20년 이상 복역한 어느 살인자가 우리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아이들이 해꼬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조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성적으로 불순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부친께서는 가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합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를 교회로 여기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집 없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에게 쉼 터를 줌으로써 부지중에 많은 천사들을 대접한다고 말합니다.

히 13:2

1964년 6월 13일에 쓴 글에서:

우리 나라에서 요즘 같은 격변기에는 극우파가 매우 활동적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과 국가 간의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고결한 사상을 가진 자들의 활동 또한 매우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는다면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권리 옹호 차원보다도 더 깊은 의를 구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1864년 4월 12일에 쓴 글에서:

저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웃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두 차례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게시된 반유태주의 포스터를 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폭력에 대항할까요?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정치에 깊이 간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웃 사람이 행한 불의에 대해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침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감히 저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65년 8월 22일 글에서:

세계는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일찍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대량 학살을 위한 준비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고문과 살상을 당합니다. 우리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극히 미미한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부의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행진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하 의원들을 방문해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모든 게 미미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압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각오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첼 슈워너(1964년 미시시피에서 살해 당한 청년 시민 권리 운동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 간에 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고난을 받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잘 아는 바이지만 - 우리는 소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깊이와 높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구해야 하겠습니다.

불의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권리 운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정의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신자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리 투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투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말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능력의 기운이 바야흐로 온 세상을 관통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갈수록 불의가 증가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새로운 의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된 거대한 필요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특히 이곳 미국의 정치적, 인종적 문제가 있는 곳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 계시록의 요한도 포함해서 -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앞서 인류가 직면해야 할 엄중한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기근과 전염병, 우리의 선조인 재세레파와 다른 많은 소수 집단이 받은 박해, 30년 전쟁, 미국 인디언 학살 등 이 모든 고난의 예들은 많은 심판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껏 인류가 겪은 가장 끔찍한 참사로 기록될 만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경제적 필요이고, 또 어떤 것은 사회적 필요입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불의와 살인과 불신의 어두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야기되는 내면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조치 혹은 사회적 조치를 통한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상투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부정직함의 울무에 걸려 있습니다. 차가운 돈이 지배하며, 음란과 불성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몇 안되는 우리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자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전인격과 전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께 최고를 드리며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으렵니다.

## 선교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진실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개인적이고 깊은 내적인 관계를 갖도록 힘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때,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브루더호프를 위해 인원을 늘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동기라면 우리의 운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으고자 합니다. 제 형, 하디가 1930년대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부친께서는 하디에게 그 대학에서 공개 강연 일정을 부탁한

참조 마 12:30

참조 마 23:37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에버하르트 아놀드 박사가 브루더호프에 관해 강연을 한다고 알리는 커다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는 “내가 하려는 건 전혀 그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것이야. 브루더호프를 전하는 게 아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소원과 원함이 한 가지 바램, 곧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밖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서슴없이 순복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무능함과 죄성과 무력함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마땅히 그랬어야 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인가에 좌우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선교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세상에서 전도가 혼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향대로 나가서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선교를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일 때만 우리는 움직입니다.

참된 선교가 특이하게 살아 움직였던 초대 교회

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 한 정성이 되었다는 것과 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겹손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명령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나 16세기 재세례파와 같이 둘씩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산 위에 도성이 세워져야 하며, 그 빛이 빛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세상이 참으로 알까요?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막 16:15-16

하루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는 오순절이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역한 사회에 예수님의 씨들이 심겨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씨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입니다. 열두 사도들은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

습니다.

선교는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저는 씨가 뿌려지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각성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의 불이 함께 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잊혀진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 와서 만난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 속에 깊이 박혀 있고 또 하늘과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펼쳐진 팔은 만민을 향하신 예수님의 열망과 동경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요 12:32

우리 삶은 일면으로 모순된 듯 싶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온 인류를 부둥켜 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살도록 설득하고 싶지요. 우리는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

기 때문에 그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의 열망이 훨씬 더 강하게 생기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헌신되지 않은 수만 명의 사람보다 전적으로 헌신된 두세 명이 더 낫습니다. 우리의 증거의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는 대중 운동보다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과 참 믿음을 가진 몇몇 사람의 집단이 더 낫습니다.

마 28:19

첫번째 세 복음서(공관 복음서)들의 따르면, 열 두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과 더불어 선교 과송을 받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선교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막 16:15

눅 24:47

요 17:21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강조하지 않고 일치체를 강조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저희가 다 하나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보면 선교는 제자들의 일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

다.

일치는 싸움을 겪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 새롭게 용서하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치가 강하면 그 일치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빛을 비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치된 교회로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에 완전히 헌신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형제가 되는 것, 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번째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멸시당하거나 필요가 무시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형제 자매, 노인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빈민가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 우리의 주된 사명은 아닙니

다. 그런 일은 도리어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면, 일은 이리저리 갈라지고 브루더호프는 여느 사회 사업 단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 10:8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제자됨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인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념할 수는 없습니다.

막 16:15-18

제 부친의 마지막 편지에서 부친께서는 “우리 [브루더호프]는 진정한 선교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이런 식의 -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 선교가 다시금 우리 시대에 재현되기를 소망하였다고 봅니다. 그런 역사가 본인이나 브루더호프에게 일어나는 것이 부친께는 중요치 않았습니니다. 어딘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저는 사도적 선교를 바랍니다. 길거리와 울타리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된 일치 가운데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또한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 보십시오. 거

요 17

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치를 향해 싸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선교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준엄하심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과 더불어 메시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마 3:7-9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친절과 긍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동일한 준엄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소명이요 임무로 여깁니다.

눅 10:3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어린양 예수님의 기치 아래 보내셨습니다. 억압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특히 종교적인 억압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상징인 비둘기를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어떠한 강제나 억압이나 악의 없이, 공격을 가한다거나 자유 의지를 짓밟는 일 없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적 선교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강압도, 압박도 없으며, 능란한 말솜씨로 설복시키지도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결코 내리눌러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또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이 패역한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부르는 일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본다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적 선교를 수행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바램이 살아 있다는 데 저는 고마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선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할 당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하여 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리라.”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결코 인간의 업무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교회와 깊은 내적인 관계가 없이는 결코 해 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데 관하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과 동시에 선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포용력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참된 형제애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보잘 것 없는 마굿간의 탄생에서 시작되어 오로지 순수한 사랑 때문에 두 흉악범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나, 하나님으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 일컬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참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치유하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참 포도나무요, 생명있는 나무이십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영혼이시고 사람의 친구이시며 새 삶으로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고 선한 목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십니다. 경이로우신 분, 상담자,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칭하십니다.

눅 13:34

그리스도는 모으는 권세 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희는 응하지 않았

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 사이의 일치와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새 생명은 분열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한 마음과 한 영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요, 모든 정사와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개념에서 당신이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받아들인 일부도 어느샌가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 속에 저는 이 사실을 당신 가슴에 새깁니다.

골 1:20

결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자기와 화해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우리의 어리석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보거나 느끼거나 깨달을 수 없는 신비를 믿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 마음에 충분히 모시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 그리스도의 한 부분만을 경험하고 - 일부 말씀만 받아들이면서 - 그것에 충실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발견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다” 라고 저는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으로 복음 전체를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전체를 모시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전체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매우 분명하고 준엄하게 보시기 때문에 마치 사랑이 없으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소망을 매우 크게 보시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 안에는 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영원한 판결의 가장 날카로운 말씀과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 준엄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

리가 그분의 준엄하심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결하게 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지 않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후 13:4

예수님이 다만 용감하고 강인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박히셨습니다. 이야말로 심원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의 죄 때문에 약하게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에 화해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박히셨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하나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강하고 거대해질 때에는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면 그것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요 15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일치에 대해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

지마다 잘라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깨끗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되신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잘라 내어 말라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정결케하시고 자기 포도나무에 새로이 접목시키십니다. 우리는 분명 처벌과 심판 아래 놓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든지 깨끗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할 때 칼을 사용합니다. 그 칼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자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플지 몰라도 깨끗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기 위함입니다.

요 15:4-7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기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눅 2:11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한 아이가 났고 너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단지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한 아  
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극히 개인적으로 이것  
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을 위해 오셨습니다.

고전 2:2

예수님의 생애는 마굿간에서 시작되어 두 흉악  
범 사이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  
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외에는 잡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자  
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굿간에서 십자가까지 그  
길을 기꺼이 따르겠는가? 제자로서 우리는 태평  
하고 좋은 시절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위해 고난  
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한 편지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강함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매우 연약하신 동시에 매우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눈물 흘리  
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암탉이 병아리  
를 모으듯 하시길 원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공중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도 꺼려하지 않았습니

마 23:37

요 11:35



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고뇌하는 모습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모두 세상에서 볼 때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하여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감수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 하였습니다.

정말 연약할 때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무력할 때 우리는 강한 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회심한 다음에 몇 주간 지속되었던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왜 계속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척 혼란스러워서 아버지께 여쭙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감정에 좌지우지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일지 않아도 그저 따라가야 하는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했는데 결혼 생활은 기쁨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아닙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벅찬 기쁨의 감정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고통과 눈물이 있고 슬픔과 허전함이 있는 때에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한결같은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 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 마음 속에 거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요 6:53-56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나의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완전히 하나되는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망설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마음보다 차가운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계 3:15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알기 원합니다. 겉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흡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경은 하

나눔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준엄한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 용서로 말미암아 생기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내 영혼, 나의 구원만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위대함을 망각하는 주관적인 신앙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주관적이라 해서 예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상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잘 안다거나 기도문을 되뇌인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셔야만 그분의 인격에 의해 우리가 움직여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

시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경험과 대치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입니다.

참된 제자됨에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 외 다른 모든 사랑은 -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까지도 - 상대적으로 작아지도록 요구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작은 부분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 죽음, 부활, 심판 그리고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 이미 예수님의 삶과 죽음 속에서 나타나신 바 된 그분 속의 생명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장 깊은 것 안에서 그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과 비유, 돈과 세상 물질을 거부한 것, 순수한 마음과 관계의 신실함, 불의를 슬퍼하고 또 불의를 당하신 것, 흉악범과 함께 죽으신 죽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 마음과 보혈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피를 마시는 것은 모세의 법이 금지시킨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피 외에는 달리 건줄 수 없는 그런 일치와 공동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 9:12

예수님은 공의로운 자와 의인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의사요 잃어버린 자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 10:14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한 편지에서:* 날마다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불 태워져 단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25:1-13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평화와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 명은 준비됐으나 나머지 다섯 명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잔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불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예

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시대에도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거의 2천년이 지났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전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겠더라면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면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복이 매 세대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또 선포되어야 합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실재를 어렵풋하게 느끼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더 커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것이 모두 비워져 있을 때만 당신 마음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물통에 물이 가득하다면 더 채울 수 없겠지요. 그러나 비어 있다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간의 틈만 있어도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한 편지에서:*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심령이 가난해져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구석을 모조리 없애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에게 순복할 때 당신의 모든 감정도 변할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섬기기 원한다면 실제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자녀 양육에서, 남편에 대한 태도에서, 교회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주십시오. 쓰신 편지처럼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실재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기 견해가 너무나 많고 자아 의식과 자존심으로 가득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 알지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옛 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깊은 것을

마 5:3

쏟아놓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 12:24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냥 낱알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생애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개개의 낱알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계시게 하십시오! 더욱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 곁에 있도록 - 그리스도를 섬길 때 - 한 가지 정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피 흘려야 하는 날이 오더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요 14:21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이나 가르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갈 2:20

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참 사람이요 인자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 1:14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방법은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리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런 의미로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엡 5:23

그리스도를 생생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모습 -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난 아기로, 그리고 골고다에서 두 흉악범 사이에 정죄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도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 -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실 그리스도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의 신랑되신 그분

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거꺼이 가려 합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초와 심지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자신을 그분께 바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중심일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쇄신이 필요합니다. 매번 새롭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마음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내주를 말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란 하나님의 인성적 표현입니다.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람들 마음에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 자신의 부정과 불의, 거짓말, 살인, 더러움, 어둠으로 말

요 1:1,3

미암아 큰 고통과 가책을 느낄 때 -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어느것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의 죽은 문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문자의 형태로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거룩한 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느낄 때, 마음 속에서 뭔가 불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지만, 죽은 문자는 죽일 뿐입니다.

고후 3:6

신·구약 성경의 죽은 문자는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성경을 손에 쥐고 다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재세례교 신자들을 박해할 때 성경을 손에 쥐고 다니며 익사시키고 화형과 참수형과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과 상관이 없으며, 또 신약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암송한다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데 불 타오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그 말씀은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 4:12-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의 눈 앞에 …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이 드러나느니라.”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찢어 찌개는 예리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내적인 필요를 공감하시는 분을 - 동일한 이해를 가지신 분을 -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칼에 우리 마음을 내어 놓는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한다면, 우리 또한 거절당할 것입니다.

히 4:15

마 4:4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철을 녹여 틀 속에 넣고 어떤 모양을 찍어 내듯이 혹은 책으로 엮어져 나오듯이 - 성경책으로 만들어졌어도 - 그렇게 경직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순되지 않고 신약 성경과도 모순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명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한 편지에서:* 성경이 당신에게 살아 있는 책이 되었다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문자가 아닌 살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불 타오르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외적 활동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어 내적 생명이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내적 생명은 그분을 위해 불 타오르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 성령님

성령님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분은 상하고 겸손한 심령에만 임하십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의 일대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성령님을 대망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은 바 되었을 때 온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의 갈망은 대단해서 하루에 삼천 명의 사람들

행 2:41

이 더해졌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악령들이 역사하는 오늘 날 - 더러움과 파괴와 불의와 반역과 살인의 영들 -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필요로 합니다. 일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노래할 때나, 잠잠할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웅대한 목적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의 경건치 않음을 깨뜨리시도록 기도합시다.

엡 4:4

성령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남아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하는 것, 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입니다.

행 4:32

*한 편지에서:* 오순절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은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은 그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의 사랑이

그렇게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불꽃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케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마 3:16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비둘기로 비유됩니다. 비둘기는 온순합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육식성 조류 앞에서 달아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육식성 조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님을 몰아내었습니다. 성령님은 저항을 받으면 사라지십니다. 오직 낮은 자, 상한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죄 용서함을 위해 뿌려졌다는 사실은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시니 십자가 없이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 십자가 없이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식의 - 100퍼센트 사랑만은 아니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퍼센트 정의가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천사들의 세계에 반드시 보여져야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역사상 가장 극악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최대의 사랑을 보이셨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한 편지에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우리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의 일치 외에 달리 마음의 참 평화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악에 대해 가장 엄정한 진노의 심판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주된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곧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속 - 십자가의 죽음 - 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알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 것은 잊습니다. 현대 사상 속에는 속죄함을 거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심판을 직면하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가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인간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계 5:6

우리 마음 중심에 - 우리 소명의 중심이요, 우리 사명의 중심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신비스런 계시의 뜻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만큼 경험해야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적 불결함만이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 속임수, 살인, 위선, 사랑 없음, 질투 등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볼 때 비로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한 편지에서:*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말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종일토록 무슨 상황이든지 말입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은 죽음을 관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자비를 나타내든지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동시에 양쪽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 중에 도움을 구한다면 - 우리는 당연히 곤란을 겪습니다 -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세상 고통이 시작됐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적인 자기의 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 하나님이 겪으신 아픔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겪으신 하나님의 고통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풀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셨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가지 말씀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했어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땅에 뿌리가 박힌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는 하늘 높이 솟아서 양팔을 넓게 펼친 채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혹과 죄와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도 알고 그 의미도 압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믿습니다. 모두들 십자가에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지고 칼처럼 우리 마음을 잘라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버린 바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감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기 위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고하게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우리의 감격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심령마다 죄 용서함을 받도록 자기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팔은 십자가에서처럼 모든 회개하는 자를 위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일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오순절 사람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성령님의 거듭남은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부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사랑, 질투 따위로 가득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를 깨뜨리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깊은 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히 4:12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면, 그 어떤 것이나 그것이 결혼이든, 선교이든, 핍박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일의 시기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 예수님과 같이 쓴 잔을 다 마시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가장 절친한 사람들에게 바램이 있다면 쓴 잔을 끝까지 마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마지막까지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불 타올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지 않으려 하고 자기를 잃지 않으려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 상의 죽음과 또 음부에 내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십자가의 겸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살살이 뒤져도 십자가 외에 그 어디에서도 죄 용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고난의 길을 말해 줍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하라고 독려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대한 생각을 품기 위하여 개인적인 고민거리는 뒤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개인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 머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개인 구원의 차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감쌉니다. 아니 이 땅보다도 더 큰 것도 끌어 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런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과 또 천사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마 천사들까지도 이 모든 배후의 신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 우리 영혼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 구원

마 25:1-13

*한 편지에서:* 열 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의 실재와 함께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면 두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 이 둘 사이의 긴장은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없어집니다.

요일 4:18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벧후 3:9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도 잃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음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또 회개와 회심을 거쳐 믿음을 알지 않는 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

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도 심판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지만, 그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린양 예수님의 성품이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의 은혜에 자신을 열고 열지 않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부서뜨려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엄정한 심판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계 5:6  
마 3:16

롬 8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선택된 혹은 택정된 사람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들도 구원을 받는가?” 하고 물을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둘째 편지에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줍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원수까지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인내하심을 경홀히 대하

벧후 3:9

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승리하실 때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서서히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며 그리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심판을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판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강하게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조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의 속박에 싸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계속 분열된 채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상을 속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초점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계 5:6

어렸을 때 저는 언젠가 많은 무리들이 - 노동자들 -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리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머물렀던 많은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기독교 사

계16

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계시록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이 잇달아 땅 위에 부어지는 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계 무척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전체적인 사고방식과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골몰하며 성경 - 예언서와 신약성경 - 을 살펴보았습니다.

요 12:31-32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문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것과 단지 몇 사람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향한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 그 좁은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 8:1-11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

요 8:59

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지 확연히 밝히셨습니다. 8장은 우리에게 그리고 개개인에게 결정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가? 아니면 의심하는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 8:34-35

스스로 난 자유롭다고 생각해도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유와 속죄, 해방을 찾을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8:24

또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켜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죄로부터, 죽음의 공포에서, 이 시대의 사랑 없음에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것의 노예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요 8:51

마 25:1-13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그

리스도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은 모두 처녀였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었습니다. 모두들 외적인 모양을 - 등잔 -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은 성령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 다섯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 5-7

팔복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 전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서 기도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돈과 재물을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엄정한 심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 날마다 예수님이 만지시도록 - 깨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

리와 더불어 신랑을 맞이할 자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도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죽기까지 기독교의 외형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됨은 살아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눅 1:15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태어나기 오래 전에 이미 택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겔 18:23

구약 성경을 보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는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벧후 3:9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눅 22:31-32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밧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 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다오.” 사탄은 우리도 또한 밧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할 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청해야 하겠습니다.

눅 22:54-62 제가 낙담될 때마다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몸을 돌려 바라보셨다.” 저는 예수님이 수없이 - 무척 슬픈 얼굴로 - 우리를 돌이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저 남아 있는 일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일을 미리 아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그런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13:21 예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는 모습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택정된 다음에도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브루더호프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롬 2:28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 세례를 받았더라도 - 외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거나 세례를 행한다고 그 자체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롬 2:29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글로 명시된 계율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했던 것인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글로 명시된 계율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더호프에서 사는 우리의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

령님의 자유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롬 3:28

구원에 관한 바울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의 핵심과 의미는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으나 교만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고전 15:28

당신은 천년 왕국, 의인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미래에 관한 많은 신비들에 싸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이기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자 위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 하나님 나라

죄가 있든 없든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고, 인종 차별이 있으며, 누구는 굶주리고 누구는 음식을 남기는 등 식량 분배가 되지 않고, 자동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의 불의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애타게 바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과 평화를 향해 움직여질 때만 하나님의 의가 침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 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잘 아다시피 예수님은 곧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이들이 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마 3:2

마 6:33

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곧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시급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되었고, 무기의 위력은 가공할 만큼 합니다. 사람, 인종, 국가 간의 관계는 풀리지 않고, 돈 가진 자가 다스리는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세상적인 특권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포기한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유로와질 것입니다. 오, 회개, 타오르는 사랑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를 어렵פות하게나마 볼 수 있다면!

마 19:21

국가의 자유와 안전은 이제껏 가장 위험스러운 무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기반 곧 하나님의 것 위에 우리의 안전을 쌓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의 삶을 구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 땅이 힘의 통치가 아닌 하

나님의 통치 아래 놓일 때만이 우리의 바램은 성취됩니다.

요 6:11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 한 가지 희안한 일이 벌어졌습

요 6:15

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네 왕으로 삼으려 했

요 6:26-66

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

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고 말씀하

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의를 품

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 다음에 예수

님은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떠

났으니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떠나려 합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왕을 삼으

려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

셨을 때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

다. 물론 하나님께 떡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나, 예수님

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

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

지만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은 다름 아

닌 배금주의 기반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었습니다. 잘못된 기반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

우느니 차라리 자기 제자들을 포기하는 편이 나았

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한몸과 한피가 되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실제 음식입니다.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도록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는 행위나 떡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신하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신하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과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당시만 해도 - 아다시피 - 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무리가 따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고 물었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멋집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요 6:67-68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길이고, 행위와 떡과 특권과는 전혀 다른 기초 위에 세워

진 사회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일 각오를 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멸시당할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엄청난 불의와 피흘림의 시대 속에서 발달한 이 사회의 길은 구원과 속죄가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구원과 속죄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층 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을 사람들 안에 다시금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하나로 모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귀신과 더러운 영을 내어쫓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신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각한 것은 아닌지, 또 개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속죄받는다든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위대합니다!

마 4:17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지금 현시점보다 그때 당시가 더 가까이 임박했었습니다. 시간상 가까왔던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약 5:16

하나님 나라는 씨름하고 싸워 쟁취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싸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막 9:29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분의 교회가 이 나라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 굉장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그 나라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야기된 모든 분열은 극복될 것이고 사랑이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의 나라와 미래의 통치를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힘차게 살고 시간을 활용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만 있다면 그것이 베들레헴이든,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베트남이든 - 사람의 마음이든 - 어디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두세 사람만이라도 그 마음이 움직인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과 총리들, 장군과 군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 믿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 “둘째 아담” 이요 참 사람이신 하나님 - 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자유와 치유와 속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싸움에 더 깊이 가담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을 더 깊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 가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 속에 힘차게 삽시다! 자신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자문합니다. 난 충분히 사랑했는가. 충분히 소망했는가, 충분히 투쟁했는가? 그 나라를 기대한다면 행위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칼 바르트(스위스 신학자, 1886-1968)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전혀 다르며, 우리와 전혀 별개인, 우리 자신과 도저히 섞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 14:9-20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귀와 죽음을 이기셨을 때, 골고다에서 인간 역사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악에게는 기회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바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편에서 있을 수 있도록 용기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 24:36

하나님 나라와 최후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며, 또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 교회의 기록과 개개인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각은 아버지만 아시며, 하

나님의 아들조차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극한 경외감과 존경과 신중함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많은 관심을 두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말씀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눅 21:9-11

우리는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멀고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징조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 중의 일부는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밤의 도적처럼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눅 12:39-40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 두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하며 그 나라는 평화와 승리와 정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죽음과 악을 그의 창조 세계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 악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악과 어떤 싸움을 벌이셨는지 또 이 싸움에서 사람의 역할의 비중과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싸움이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 19:11-21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고난을 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도록 아들을 넘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게 하셨으니, 그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혼과 몸의 분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일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몸,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태로 세상을 보면 심판이 불가피함

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이미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할지 스스로 애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구하며 앞당겨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벧후 3:12

태초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한없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홀로 다스리십니다. 탄식하던 피조물이 구원을 받고 우주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순전한 기쁨과 사랑과 화합과 정의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거기에는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를 바라보는 간절한 열망이 영적 존재나 인간 존재, 그 모든 존재의 마음에 불 타오릅니다.

계 7:17

계 21:4

예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 우리의 소소한 삶 너머로 볼 수 있다는 것 - 이 얼마나 큰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시각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작은 세계, 또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는 큰 심판 날 - 미래에 올 세대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추수하는 날 - 에 대한 도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